

조직위 활동비 삭감... 통역요원 뿔났다

기준수당에 식비·통신비 포함 월 65만원 줄어... 업무 시작전 공개 공분

AG 현장 소식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활동하는 통역요원들이 폭발 일보 직전이다.

조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활동비를 삭감해놓고 업무 차질을 우려해 이를 제 때 알리지 않았다는 의심 때문이다.

통역요원 일부는 '사기', '법적 대응'이라는 표현까지 언급하며 여전히 조직위를 향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고, 일부는 일을 그만두는 등 업무 공백이 생겨나고 있어 자칫 국제적 망신마저 우려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을 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통역요원들을 모

집하면서 하루 기준 수당 5만원과 식비(1만원씩 2식=2만원) 및 통신비(5만원=한달 근무 기준)를 지급한다는 후생지원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응시생 중 의전, NOC(국가올림픽위원회), TD(기술대표), 국제협력, 등록 등 5개 분야에서 통역으로 일할 1145명이 지난 4월 선발됐다.

이들은 5월부터 7월까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받은 뒤 맡은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지난 5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조직위는 이들에게 활동비가 삭감됐다는 사실을 공식 업무 시작 거의 하루 전인 3일 자정에서 4일 오전 1시쯤에 인터넷으로 겨우 공지했다.

하루 일당은 애초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던 식비와 통신비를 기준 수당에 모두 포함하면서 5만원으로 줄었다. 한명이 한 달 일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식비 2만원씩 30일 60만원에 통신비 5만원을 합해 65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조직위가 이들의 활동비를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6월달에 세워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조직위는 이를 미리 공식적으로 개별 공지하지 않고 몇달을 미루다 업무 개시 직전 인터넷에 슬그머니 올려놓으면서 통역 요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통역요원은 "마치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업무 시작 직전 삭감 사실

을 공개한 것은 인력 유출을 우려한 고의적인 행위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며 나중에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일부 요원들은 일을 그만뒀고 한 종목의 경우 참가국 중 무려 4개국의 통역요원들이 부족해 대체 자원들을 총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조직위가 개별 통보를 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초기 공지 때 활동비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대신 조건부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심야교통비나 조직비, 식비비 등을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에너지 자립 섬 구축 협약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윤길 용진군수가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덕적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 업무협약

시·한전·용진군 맞손... 신재생 에너지 보급 가속

인천시는 16일 시청에서 한국전력공사, 용진군과 공동으로 '덕적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에 대한 '에너지 자립 섬 구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덕적도의 단방향 전력 공급서비스가 한국전력공사의 'AMI 인프라 구축'과 '마이크로그리드 구성'으로 구성된다. 또 그동안 도서지역의 독립된 디젤발전의 안전성 문제로 제한된 일반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그동안 연안 섬을 대상으로 '에

너지 자립 섬 구축' 목표를 세웠다. 대표적으로 덕적도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테마별 마을을 조성하는 '덕적도 예코아일랜드 조성사업'이 1단계 30억 원 규모로 지난 4월에 착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4년 융복합 지원사업'은 인천시, 용진군, 한전 등 1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3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에는 덕적군도인 백아도의 디젤발전소를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로 100% 전환하는 '탄소제로섬 조성'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16일 북측 분진 선수단 입국을 환영하러 나온 남북공동 응원단 단원들이 인천공항입국장에서 통일을 기원하며 선수단을 환영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모든 부서 업무추진비 공개

인천시교육청 확대 결정

인천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교육비리 척결과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감사관까지 공개하던 대상을 본청, 교육지원청의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로 넓혔다.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에 인적사항 기재대상 집행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된다.

월 1회 홈페이지 공개 시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부적절한 집행이 적발될 때는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정지혜 기자 jh@incheonilbo.com

쓰레기 매립지 선정놓고 지역사회 반발

중구 의원 "인천공항 이미지 실추 될 것...국민 우롱 탁상행정" 비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영흥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 후보에 포함된 영종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규찬 중구의원은 16일 성명을 내고 "영종도와 신도·시도·모도에 매립지가 들어서면 해양오염으로 주민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며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 국제공항 주변에 발생할 악취와 분진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시는 영종·용유·

무의 지역을 관광·레저·휴양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뒤로는 매립지 후보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영종 지역 전문가 모임인 '영종포럼'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미단시티 복합 리조트와 한상드림아일랜드가 들어설 영종도에 매립지를 두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에 역행하는 판단"이

라며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서해가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충북 청주시가 매립지 선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보상을 거치는 것과 달리 시는 몰상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영종도로 매립지가 결정되면 시는 강력한 민주주의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인천일보 기사는 **D4U** 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정부 3.0' 모범 자치단체 선정

인천행정부는 인천 남동구 등 6개 시군구와 세종시를 '정부3.0' 모범 자치단체로 육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3.0이란 정보개방·공유, 부처 간 소통·협력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원리이다.

인행부는 226개 기초 자치단체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남동구, 대구 남구, 충북 충

주시,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전남 장흥군을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사업 지자체로 선정했다.

인행부는 7개 자치단체에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자치단체가 발굴한 창의적인 사업에 대해 재정과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인행부는 반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해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육성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구재용 시의원, 인천에듀콜센터 설치 조례안 발의

민원접수·응대 절차 간소화 목적

미추홀 콜센터처럼 인천시교육청에도 콜센터를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구재용 인천시의회 의원은 16일 인천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분산되고 반복적인 각종 민원의 접수형태와 응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칭 '인천에듀콜센터'는 교육청 내 설치되며 법인이자 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될 전망이다.

7명의 전화 상담사가 근무하며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 비용 등으로 1년에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정지혜 기자 jh@incheonilbo.com

미사리 7080 페스티벌

2014 하남 이성문화축제

2014. 9. 27(토) 하남 유니온 파크 잔디광장
 낮 12시 ~ 오후 9시 30분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및 도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가요제]

개그맨 박미루

숙영

강진

시민참여놀이 및 먹거리체험 낮 12시 부터 ~

시민가요제 오후 5시 30분 부터 ~

미사리 7080 콘서트 오후 7시 30분 부터 ~

불꽃놀이 오후 9시 부터 ~

[미사리 7080 콘서트]

MC 임백천

변진섭

악스 최상수 아이유

[식전행사] 9시 30분 ~ 10시 40분
 군악대 퍼레이드, 축하비행, 예술공연, 퍼포먼스

[공식행사] 10시 40분 ~ 12시
 시민의 날 개회식 및 기념식

[식후행사] 12시 ~ 12시 50분
 시민단체게임, 특전사, 특공무술 및 고공낙하
 결그룹 레인보우 축하공연

[체육대회] 13시 ~ 16시 30분
 육상, 축구, 족구, 게이트볼, 줄다리기

[축하공연 및 폐회식] 16시 30분 ~ 18시
 여성4인조 아모르파티 축하공연

시승격 25주년 기념식 및
하남 시민의 날

체육대회

2014. 9. 28(일) 하남종합운동장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인천아시아게임 개막을 앞두고 신설된 국제규모의 경기장들에 주차장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옥련동 사격장 주차장에 차량들이 가득차 있다. 경기장 입구에는 관람객 차량출입 금지 표시판이 서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大축제 아시안게임 小주차

사격장 88면뿐...면수 한계에 대형버스 다툼도

“별해 기사들끼리 다툼도 벌어졌어요.”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진종오 선수 등 국내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사격 경기장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회 기간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8일간 진행되는 사격 경기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50m 권총과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진종오 선수를 비롯해 최영래, 김갑지 등 국내 인기 선수들이 출전한다. 조직위는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이들을

보기 위해 하루 수백명의 관중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 관람석은 1337석이지만 주차장은 겨우 88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88면 가운데 선수들이 탑승하는 수송 버스는 5대밖에 주차할 수 없어 조직위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장의 한 경찰관은 “선수와 심판 등 경기 관계자들을 수송하는 대형 버스는 5대밖에 댈 수 없을 만큼 주차 공간이 협소해 큰 불편이 예상

된다”며 “얼마 전에는 주차를 먼저 하기 위해 선수단 수송 버스 기사 간 다툼까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경기장 자원봉사자는 “조직위가 선수들과 방문객들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선수단을 시간대별로 수송하고 일반 관람객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 등에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해 경기 당일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아주 기자 aju@incheonilbo.com

AG 활용한다던 호텔 아직도 공사중

시, 특혜 의혹 불구 숙박시설 부족 이유 규제완화

소송 땀 패소 가능성 높아 정책철회 결단 못 내려

인천시가 과거 특혜 의혹에도 아시아 경기대회에 활용하겠다고 규제완화를 준 계양구 A호텔과 부평구 B호텔이 결국 이번 대회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공사 중인 A호텔은 아에 대회 협력호텔에서 제외됐고, B호텔은 오는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규제완화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패소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를 대비해 진행하고 있는 A호텔과 B호텔의 확장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A호텔은 대회 기간에 일부 영업이 가능하지만, B호텔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호텔은 원래 아시아경기대회 협력호텔로 지정돼 있었다. 당초 대회 조직위

원회는 이번 대회에 참가할 심판진이 묵을 숙소로 A호텔을 낙점했으나, 지난 5월 공정률이 낮다는 이유로 협력호텔에서 제외된 상태다. 심판진도 이 호텔에 머물지 않기로 했다. 시는 A호텔이 아직 공사 마무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B호텔은 최근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를 부평구에 제출했다. 문제는 완공 시점이 오는 2016년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호텔들은 지난 2012년 시 정책에 따라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된 곳들이다. 당시 시는 호텔 부지의 용도를 일반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거나 용적률을 크게 올려주는 등 호텔 소유자의 재산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해당 호텔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자 “대회 숙박시설이 부족해 호텔 확장이 꼭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규제완화를 강행했다. 시도시계획위원회도 규제완화 안건을 가결하며 대회 전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규제완화를 철회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당시 결정대로라면 A·B호텔의 규제완화는 철회돼야 할 상황이다.

시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으니 규제완화를 철회하는 게 맞지만, 최근 법률 검토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 결과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특정인의 재산가치만 올려주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A호텔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 처분을 내리기 곤란하다”라며 “B호텔은 공사 진행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st@incheonilbo.com

‘先임용 後전입’ 경실련 정부부시장 고발

조건 맞추려 허위신고 후 오늘 관사 입주...시 “법 판단 지켜볼 것”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임용 당시 위장전입 논란을 불렀던 배국환 인천시 정부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배 부시장을 형사고발했다. 주된 혐의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무원법 방해 혐의이다.

배 부시장은 지난 7월 30일 임용조건을 맞추기 위해 인천에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배 부시장은 경기도 분당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밝혀 위장전입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배

부시장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또 배 부시장이 이를 속여서 정부부시장에 임용됐기 때문에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공무원법배해 혐의를 더해 고발했다.

인천경실련은 “배 부시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배 부시장의 위장전입 논란은 취임 초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다. 시와 배 부시장은 집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전입신고를 먼저 했으며, 불순한 의도를 가

졌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관사를 구한 배 부시장은 17일 입주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천시의원들도 임용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에 임용은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심대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st@incheonilbo.com

받을 돈 1000억 못 받은 인천시 감사원, 각종 부담금 미부과 적발

인천시가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렇게 건지 못한 부담금이 1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인천시는 지난 2009년 12월 검단신도시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검단신도시 사업 면적 중 농지전용면적 406만 3484㎡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는 이 부담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돼 있다.

이렇게 부과되지 않은 부담금은 검단신도시 사업에서만 971억 7118만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부담금 부과기간도 4년 3

미부과 부담금 현황

해당기관	부담금 종류	미부과금액	비고
인천시	농지보전부담금	971억 7118만 원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남구	“	16억 8493만 원	“
서구	“	1억 7315만 원	“
강화군	“	6억 1516만 원	“

남동구 개발부담금 12억 2293만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

/자료=감사원

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부담금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남구와 서구, 강화군도 각종 사업으로 농지가 전용됐는데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담금 규모는 각각 16억 8493만 원, 1억 7315만 원, 6억 1516만 원이다.

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인천을 비롯한 10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기초자치단체,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부담금 관련 업무이다.

/박진영 기자 erhst@incheonilbo.com

이 밖에도 남동구는 지난 2010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창고 시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개발이익 12억여원이 발생했는데도 개발부담금

since 1955

배려하는 마음 합리적인 생각 - 인천단봉초등학교

제25회

단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기별체육대회

일시 : 2014년 9월 21일(일요일)

개회식 11:00

장소 : 모교 대운동장

오색단풍이 온 산하를 물들이고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저희 단봉초등학교 총동문회의 발전과 모교에 대한 사랑에 깊은 감사드리며, 가정에서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림 말씀은 금번 제25회 단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기별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지역 유관기관장님과 내·외빈을 모시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며 제2의 도약을 향한 단봉초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큰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단봉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 정 호

임원명단

총동문회장 : 이정호(15회)

·수석부회장 : 채명진(16회)

·문 화 이 사 : 이웅래(22회)

·부 총 무 : 김규환(34회)

·부 회 장 : 이일규(17회)

·체육이사 : 박동준(25회)

·체육부장 : 최동규(27회)

·감 사 : 한남수(14회)

·홍보이사 : 이종범(25회)

·체육부장 : 권창민(36회)

·대외협력이사 : 이승호(19회)

·총 무 이 사 : 이주철(28회)

·문 화 부 장 : 김성자(35회)

인천 자동차(중고차)의 모든것

IVT PARK

CAR LAND 카랜드

경험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중고차 할부의 마지막 자존심,

고객님의 자동차 고민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안되는게 없다!

저신용자, 7등급미만(8등급~) 무조건 무조건이야!

중고차 판매·매입에서 수리까지! 허위매물 NO!

사 장 : 김종구

H.P : 010-8916-8919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105 엠파크타워S-45호

등록번호 : 137-13-44805

국회의장, 의사일정 직권결정...野 반발

정기회 계획 국회법 의거 결단...여야 협조 요구

26일 본회의 실시...내달 1일부터 국감 등 진행

새정치 “전례 없어...국회 권위 실추 시키는 것”

세월호 정국으로 정기국회가 3주째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하고, 각 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의사일정 진행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원 국회의장 직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운영위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전달받은 뒤, 국회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국회법 제76조 제2항, 3항에 따라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17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즉시 시작하고 오는 26일에는 본회의, 29~30일에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10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2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23일부터 28일까지는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열고, 31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는 국

정감사 실시에 필수적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9~30일로 한 이유에 대해 이 수석은 “현재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사정으로 인해 교섭단체대표연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했다”며 “29일전에는 야당의 상황이 수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박병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차례의 선례 중 1차례는 여야 합의를 한 뒤 형식상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 사례”라며 “(그 이후)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독단적·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수석전문위원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며 본회의장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시 ‘지정문화재’ 관리 엉망 훼손 우려...보수작업 시급

2008~2014년 정기조사 실시 전무

조례규정 부재·정비 사업 미선정

박주선 “체계적인 관리 이뤄져야”

177개의 시 지정문화재가 인천시의 관리부재로 사실상 방치되면서 파손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간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시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시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낙산사가 화재로 전소한 이후 국회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국가 지정문화재는 물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해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한 바 있다.

정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사업 대상도 선정되지 못해 문화재의 훼손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낙산사·송례문 화재 이후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시·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현상, 수리 등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화재의 보수·정비 등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시·도에서는 신속히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수리·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원정 성매매 급증...방지법 시행 10년 ‘무색’

“알선자 강력 처벌·단속 필요”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

적발국 일본 61%...가장 많아

박남춘 “성매수자 감시 시급”



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필리핀, 미국, 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

남아 성매매관광과 관련해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적발된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볼 때 동남아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성매매 검거자는 4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해외성매매 검거자 수 128건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외성매매 적발국은 일본이 61%

남아 성매매관광과 관련해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적발된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볼 때 동남아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늘어나고 있는 해외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인천일보 기사는 NAVER.com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특위 수사·기소권 부여 반대”

박 대통령 “삼권분립·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결단 내릴 사안 아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과 관련,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기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새정치연합 설촌 의원의 ‘대통령 연애’에 관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 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향방과 경제민생법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국회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화림국제의료센터

(외국인전용병원)

암,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후유증,
희귀난치병, 신경통,
노인질환

임 원회 요양병원
신재시고 요양병원
자동차사고 요양병원
노인장기 요양병원
노인 전문 요양원
한·양방물리치료재활치료
한방 침, 뜸, 부항(약침, 특수치료)

화림요양병원
화림전문요양원
한·양방협진병원



입원문의 (032)751-8370, 8373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00-1(인천국제공항신도시) www.whalimmd.com

홍문사 정도원

도심 속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품격 봉안시설을 자랑하는
홍문사 정도원 봉안당!!

- ◆ 신뢰할 수 있는 운영과 관리
- ◆ 홍문사와 영구히 존재
- ◆ 다양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 ◆ 가까운 곳, 편리한 교통

이(개)장 관련, 장례/화장 절차에서
안치/봉안까지 24시간 상담 가능!!

24시간
상담문의

(032)834-1131/832-1131
www.jungtown.co.kr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06-12



지난 12일 남동구 구월동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개촌.



/사진제공-인천시



지난 15일 전 농구 국가대표 한기범이 의정부에서 성화를 봉송하는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2007년 유치를 성공한 인천아시안게임이 오는 19일부터 10월4일까지 개최된다. 개막까지 단 이틀, 준비는 끝났다. 이제 성공적 개최만을 남겨졌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를 향해 아시아 45개국에서 모인 선수와 임원들이 구월동 선수촌에 입촌하고 있다. 입촌식을 끝냈고,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한 선수단도 1진이 짐을 풀었다. 2진은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대회기간 인천 하늘을 뜨겁게 지켜줄 성화는 전국을 돌아 서울에 다달았다. 300만 인천 시민이젠 기회가 될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에 모두가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

▲각국 선수단 입촌…남녀 축구 순조로운 출발

인천아시안게임이 조임기에 돌입했다. 인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선수 맞을 준비를 끝냈고, 성공 개최를 위해 등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송도 미추홀타워 13층에 인천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 개소식이 문을 열었다. 대회 운영이 사실상 시작했다. 지난 5일에는 선수촌 병원이 개원하며 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의 건강관리 시스템이 가동됐다.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도 속속 입국하고 있다. 지난 5일 이란 원정진 4명이 입국한 데 이어 추석 당일인 8일 오전에는 타지키스탄 태권도 선수 8명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외국 대표팀 선수 중 가장 먼저 입국했다. 이어 같은 날 싱가포르 요트 선수 10명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쿠웨이트 축구대표팀이 입국했다. 방글라데시 축구 대표팀은 선수촌에 가장 먼저 입촌을 신고했다. 또 11일에는 태국, 중국, 이란 축구 대표팀이 입국했고 12일에는 일본, 우즈베키스탄, 네팔 축구 대표팀이 한국 땅을 밟았다. 우리나라의 축구 조별리그 첫 경기 상대인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도 12일 입국했다.

북한 선수단도 모습을 드러냈다. 장수명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와 임원, 심판진, 의료진, 기자단, 축구 및 조정 선수 등으로 구성된 북한 선수단 선발대 94명도 11일 오후 고려항공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북한 선수단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 5개조로 나눠 출발할 계획인데 북측이 조직위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16일에는 선수단 87명이 들어왔다. 19일(33명), 22일(41명), 28일(7명) 등에 걸쳐 총 273명이 차례대로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다.

선수촌은 지난 12일 개촌식을 갖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취재 및 사진, 방송 등 미디어관계자들의 활동무대인 메인프레스센터(MPC)와 국제방송센터(IBC)는 16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MPC 1층에는 350석 규모의 공동작업장과 150석 규모의 사진기자 작업실이 있다. 17일에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모의 개회식 행사를 진행하며 개막을 일박한 시점에서 최종 점검이 이어진다. 개막 전날인 18일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공식 환영연이 아시안게임 패션쇼와 함께 열리고, 19일 인천 아시안게임이 16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아시안게임은 이미 시작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남자축구 A조 예선 한국과 말레이시아 경기가 열렸다. 한국이 3대 0으로 이기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같은 날 여자 축구에서도 한국은 태국을 5대 0으로 완파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이후 28년 만에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남자 축구팀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와 A조에 편성됐다. 한국 남자축구팀은 17일 오후 8시 경기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2차전을 벌인 후, 21일 오후 5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라오스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아시안게임, 대중교통과 함께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는 웅진군과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모든 지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짝수날에는 짝수차량, 홀수날에는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데, 사진에 운행 허가증을 받은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2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외에서 진입한 차량도

상황실 개소 대회운영 시작·선수촌 병원 가동

선수단 입촌…北 28일까지 273명 순차적 입국

16일간 차량 2부제…셔틀버스 투입·열차 증차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천시와 조직위는 전철역과 경기장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개폐회식 관람객 대중교통 요금 무료, 시내버스 노선조정,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증편 운행 등을 시행한다.

19일 개회식과 10월4일 폐회식에는 주경기장 주변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개폐회식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구 주경기장 주변(봉수대로, 국제대로, 염곡로) 도로의 일반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아시아드주경기장까지 총 13개(1, 17, 17-1, 28, 42-1, 42-2, 46, 77, 111, 111-2, 302, 308, 903)에 이르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인천 1호선에도 임시열차를 투입한다. 또한 검암역, 작전역, 동암역, 동인천역과 주경기장 간 셔틀버스를 오후 2시부터 수시로 운행하고 개폐회식 관람객에게 행사 당일 인천 시내버스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시주차장도 대폭 늘린다. 주경기장 내에 관람객 주차가 불가능함에 따라 주경기장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주경기장과 임시주차장 간 셔틀버스를 통해 관람객을 수송한다. 임시주차장은 총 6개소 1만3800면으로 주경기장 북측에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드림파크 문화재단, 경서택지지구 3개소가 설치된다. 주경기장 남측에는 가정택지 학교부지, 가정택지 7블럭, 청라 내부도로에 임시주차장 3개소가 설치된다.

모든 경기장을 전철을 이용해 방문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경기장은 서구주경기장↔검암역·작전역, 계양경기장↔작전역, 남동경기장↔문화예술회관역, 송림체육관↔동인천역, 심정경기장↔동암역, 옥련사격장↔송도역, 송도LNG야구장↔테크노파크역, 왕산요트경기장↔용유입시역, 송도글로벌캠퍼스↔테크노파크역, 드림파크경기장↔검암역, 영종MTB경기장↔운서역이다. 경기시작 1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1시간 후까지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경기가 없는 날은 운행하지 않는다.

/이주영 기자

leejiy96@incheonilbo.com

가는 곳마다 축제…눈맛·입맛따라

인천아시안게임을 전후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열린다.

각 행사는 송도세계문화축제(9월12~20일), 한류관광콘서트(9월17일), 삼랑성 역사문화축제(9월19~10월5일), 화도진 축제(9월26~27일), 주안 미디어 문화축제(9월26~28일), 부평풍물대축제(9월26~28일), 인천근대개항거리문화축제(9월27~28일), 인천·중국 문화관광페스티벌(10월3~5일), 소래포구축제(10월10~12일) 등이다.

문화행사로는 아시아음식문화축제(9월19일~10월4일), 농정자축제(9월27~28일), 아시아 차(茶)문화전(9월26~28일), 강화개천대축제(10월3~5일), 비바공원(2~12월), 다문화국가 페스티벌(9~10월) 등이 열린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과 신포동 문화의 거리 일대에는 다문화 가족 및 유학생이 나서는 플래시몹과 길거리 음악공연이 열린다. 17~19일까지 인천구간 강화도, 영종, 연수구,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순서로 663.9km 성화봉송기간에 열리는 성화봉송 문화행사는 10개 군·구에서 33개 행사로 꾸며진다.

조직위 관계자는 “문화와 스포츠의 접목을 통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인천의 지역문화예술이 더욱 융성하고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iy96@incheonilbo.com

청라국제도시 중심상업용지
재입찰 공고

1 공공대상토지 및 공급방법

용도	필지수	면적(㎡)	공급예정가격(천원)	입찰보증금	납부조건
중심상업	13	1,400~3,000	5,082,000~11,607,760	입찰할 금액의 5%이상	3년 무이자

※ 필지별 세부내역은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매각공고문 참조

2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개찰	낙찰자 발표	계약
'14. 09. 29(월) 10:00~16:00	'14. 09. 29(월) 10:00~16:30	'14. 09. 30(화) 11:00	'14. 09. 30(화) 13:00 이후	'14. 10. 06(월) 10:00~17:00

신청장소 :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3 신청자격

일반납부요자 [1인 2필지 이상 신청가능]

4 대금납부조건

- 3년무이자 분할 납부(계약금 10%, 잔대금은 6개월단위 6회 균등분할 납부)

※ 신청공고 내용은 기본사항만 기재하였으므로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게시된 매각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전화 : 청라사업단 판매보상부
(☎032-540-1700,1784)

2014년 9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여주시 공고 제2014-784호

공 고

- 경기도 고시 제77-11호(1977.1.27.), 여주군 고시 제99-56(1999.4.28.),여주군 고시 제99-166(1999.11.1.)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5호,소로2류4호,소로3류5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하고자 같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과(☎031-887-23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9. 17.

여 주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60	소2-2태평리 175-2	소1-1태평리 190-7	일반 도로		경고11(77. 1. 27)	
변경	소로	2	5	9	국지 도로	169	소2-2태평리 175-2	소1-1태평리 190-7	일반 도로			사업노선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355	소2-5태평리산 20	중3-2태평리 203-5	일반 도로		경고11(77. 1. 27)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355	소2-5태평리 175-2	중3-2태평리 783	일반 도로			합류노선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70	소2-4태평리 175-2	소3-4태평리 191-33	일반 도로		경고11(77. 1. 27)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170	소2-5태평리 175-2	소3-4태평리 191-33	일반 도로			시점부 소 2-5호선 중복결정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 2류5호	소로 2류5호	A=1,367㎡→1,891㎡, 중)524㎡ L=160m →169m B= 8m →9m	· 보도설치에 따른 폭 변경 · 실측에 따른 연장변경 · 실시계획 설계로 인한 절· 성토부발생 · 기타 배수 시설물 설치
변경	소로 2류4호	소로 2류4호	A=2,923㎡→2,906㎡, 갑)17㎡ L=355m B= 8m	· 소로2류5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가각부 변경
변경	소로 3류5호	소로 3류5호	A=1,198㎡→1,182㎡, 갑)16㎡ L=170m B= 6m	· 소로2류5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가각부 변경 · 시점부 소로2-5호선과 중복 결정

2. 열람기간 : 신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과(☎031-887-2354)

4.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우커 밀려온다는데 ... 인천 ‘그림의 떡’

〈중국 관광객〉

2014인천아시아게임(9월19일~10월4일)과 중국의 국경절 연휴(10월1~7일)가 겹치며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고, 아시아게임을 직접 치르는 인천은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을 일컫는 말)’를 선점해 지역 관광 매출 상승으로 유도할 수 있는得天独厚的 위치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 관광업계와 유통업계에선 ‘남 좋은 일’만 하게 생겼다는 말이 나온다. 중국인들이 결국 돈을 쓰는 곳은 서울 등에 위치한 유명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라는 것이다.

올해 AG·국경절 맞아 사상 최대 방문 전망...서울은 고객유치 돌입

지리적 강점 불구 ‘자원 부족’ 지역 유통·관광업계 “남 좋은 일만...”

16일 업계에 따르면 19일 아시아게임이 개막하고 나면 올해 최대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국인 방문객 수는 336만명인데,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만 방문하는 중국인의 규모를 16만명으로 예측했다. 공사는 10월 중 중국이 단일 국가로는 처음으로 방문 규모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분위기라면 연말까지 600만명 달성도 가능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국내 유통업체들은 벌써부터 중국인 관광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번에 고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 경향을 보이는 요우커를 정중하게 대접하는 게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다.

롯데백화점은 서울 본점에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한류 인기브랜드 상품전’을 연다. 상품전을 위해 9층 행사장 면적의 절반인 737㎡를 따로 마련해 뒀을 정도다. 중국인 고객이 선호하는 32개 브랜드 인기 상품전이 이 곳에서 열린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4일까지 본점과 강남점, 인천점, 센텀시티점에서 중국

인 등 외국인이 상품 구입 시 10~3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면세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 등은 국경절을 겨냥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유통업계가 중국인 관광객에 주력하는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쇼핑’ 때문에 한국을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카드사용액 가운데 절반은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반면, 국경절 연휴 앞에 아시아게임이 열린 이런 수혜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놓인 인천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도할 관광 자원 등이 없어 타 지역을 좋은 일만 하게 생겼다.

중국인의 국내 고유 관광 패턴이던 쇼핑, 숙박에서부터 최근 소비 증가 추세인 의료, 음식까지 대부분의 관련 인프라가 지역에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천지역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배나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에 도착해선 공항철도나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로 넘어가지 인천에 체류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며 “차이나타운이나 몇몇 관광지를 빼면 중국인들이 인천에서 매력을 느끼는 곳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지역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인천엔 요우커를 담을만한 쇼핑 인프라가 서울이나 경기보다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서울에 인접해 있다 보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돈을 쓰기보다 서울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골드대표팀에 응원 메시지 보내세요”...엘로드 28일까지 이벤트

16일 오전 서울 중구 코오롱스포트 매장에서 인천아시아게임 골드대표팀 복장을 한 모델들이 골프 브랜드 엘로드의 ‘WAAC(Win At All Costs)’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골프국가대표를 후원하고 있는 엘로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보낸 응모자들에게 엘로드 클럽 폴스터 등 다양한 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연합뉴스

AG 대비 인천공항 보안 강화

공사, 오늘 ~내달 7일 ...요원 추가 배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이 대폭 강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부터 오는 10월7일까지 3주간 인천공항의 항공 보안 등급을 ‘경계’ 등급으로 올려 보안경비 및 보안검색을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도 지난 12일부터 국내의 주요 공항에 대해서도 항공보안 등급을 평소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 등급으로 높인대 이어 해당 기간 ‘경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상태다.

인천공항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입국이 본격화하면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항공보안 등급을 평상시의 ‘관심’ 등급에서 한 단계 격상된 ‘주의’ 등급으로 올렸다.

인천공항은 17일부터 10월7일까지는 이보다 한 단계 위인 ‘경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안등급이 ‘경계’로 격상되면 인천공항의 승객과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과 개봉 비율이 높아져 평소보다 보안검색 시간 간격이 더 걸리게 된다. 전자제품과 의복 등에 대한 검색은 보다 꼼꼼하게 이뤄진다. 인천공항공사는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검색요원과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강화로 다소 불편할 것이 예상되지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45개국 2만여명의 선수단과 보도진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점을 감안해 안전을 위해 승객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고기능성 유리 공급 이전창호 본격 사업

19일 신제품 발표회

이전창호가 유리 브랜드 ‘이전글라스’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전창호는 고급 창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시스템창호를 기반으로 이에 어울리는 고기능성 유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전창호는 시스템창호와 이전글라스가 결합된 완제품 형태로 판매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향상된 단열성과 견고성 등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시행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전창호가 유리 사업에 본격 진출하는 것은 창호에서 추진 중인 창호 및 에너지 관련 제도에 발맞춘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고기능성 유리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전창호는 시스템창호에 로이유리 및 진공유리를 결합한 제품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창호는 오는 19일 신제품 발표회 및 대리점 간담회를 통해 고객접점의 영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경 기자 airin@incheonilbo.com

인천항 - 동남아 뱃길 넓어졌다

서비스 노선 2개 신설

컨들물량 처리율 향상

인천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뱃길이 더욱 넓어진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인천항 발 동남아시아 서비스 노선 2개가 신설해 40개 노선의 정기 컨테이너항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항에서 새로 선보이는 서비스는 인천항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을 잇는 IA6 노선과 인천항과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를 잇는 NSB 노선 등 2개다.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SICT)에서 이용 가능한 IA6(Intra Asia 6)

서비스는 인천항을 기점으로 청다오에서 중국 상하이,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치민, 태국 랏차방, 홍콩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지난 13일 첫 운항을 시작했고, MC C, SITC, 현대상선 등 4개 선사가 2200TEU급 선박 4척을 투입해 주 1회 기항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동남아 간 수출입 화물이 주로 처리되며, 신규 창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간 약 1만 8200TEU로 예측됐다.

IPA는 IA6 항로 개설이 상하이, 세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럽 화물 환적 서비스와 연계해 수도권 화주와 객의 선택 폭을 확대해 인천항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일에는 인천컨테이너터미널

(ICT)에서 시작된 NSB(North East Asia-South East Asia Service-B) 서비스가 개시됐다. 인천항과 직항 서비스가 없었던 말레이시아 탄중 팔레라스, 일본 하카타를 처음으로 연결해 눈길을 끈다.

대만 국적 선사 에버그린이 2800~3500TEU급 선박 4척을 투입해 주 1회 주기로 운항하게 된다.

올해 예상되는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1만1900TEU로 2015년에는 연간 3만6400TEU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PA 김순철 마케팅팀장은 “새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만큼, 홈페이지와 SNS 등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수신액 4963억 ↓ ...여신액 2581억 ↑

7월 인천지역 금융기관 동향

7월 인천 금융기관 수신액이 감소한 반면, 여신액은 증가세를 이어 나갔다.

16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7월 중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에 따르면 총 수신액은 61조8049억원으로 월 중 4963억원이 감소했다.

예금은행 수신은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 예금이 크게 줄면서 5894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따른 자금 인출 영향이 컸다.

총 여신액은 78조4777억원으로 월 중 2581억원이 늘었다.

예금은행 대출의 경우 기업대출은 대기업대출이 줄면서 증가폭이 6월 중 2000억원 증가에서 7월에는 7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됐다. 6월 중 895억원 증가에 이어 7월에도 803억원 늘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4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3타경 67824	1	연수구 원인로 212, 103동 13층 1308호 [연수동, 솔밭마을아파트] 49.59㎡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복]	2014타경56791 [중]
2014타경 3902	1	남동구 논현동 732-1 민천논현힐스테이트 101동 10층 1001호 132.6151㎡	아파트	550,000,000 550,000,000	
2014타경 5380	1	연수구 선학로 37, 3동 1층 112호 [선학동, 대산아파트] 64.38㎡	아파트	136,000,000 136,000,000	
2014타경 8228	1	부평구 길주남로 175, 102동 15층 1501호 [부개동, 상우보람아파트] 111.41㎡	아파트	350,000,000 350,000,000 [복]	2014타경36988 [중]
2014타경 13930	1	남구 매퓌로 143, 2동 16층 1604호 [송현동, 관선아파트] 59.86㎡	아파트	145,000,000 145,000,000	
2014타경 22453	1	동구 송현로 50, 117동 11층 1103호 [송현동, 솔밭마을주공아파트] 79.72㎡	아파트	230,000,000 230,000,0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3타경 84256	1	연수구 한진로 57, 지층 별02호 [목련동, 삼성아파트빌] 54.74㎡	다세대	84,000,000 84,000,000	
2014타경 4660	1	부평구 경인로834번길 79, 7동 2층 201호 [부평동, 뉴정일그린타운] 38.20㎡	다세대	80,000,000 80,000,000	
2014타경 10443	1	서구 삼곡로194번길 15-1, 4층 403호 [공천동, 동원주택] 38.99㎡	다세대	75,000,000 75,000,000	
2014타경 11491	1	부평구 심정동 579-2 미래21[3차] 1동 3층 302호 57.39㎡	다세대	145,000,000 145,000,000	현황미래아트빌
2014타경 11729	1	남구 인하로248번길 40-7, 4층 401호 34㎡	다세대	72,000,000 72,000,000	
2014타경 12098	1	남동구 간석동 37-317 4층 401호 49.85㎡	다세대	78,000,000 78,000,000	
2014타경 12111	1	중구 도원동 21-52 선경하이츠빌라 지하층 3층 37.47㎡	다세대	45,000,000 45,000,000	
2014타경 12296	1	남동구 구월동 1218-2 드림타운 1동 2층 2호 46.44㎡	다세대	110,000,000 110,000,000	
2014타경 12463	1	남구 학익동 325-12 2층 204호 25.8㎡	다세대	50,000,000 50,000,000	
2014타경 13312	1	남구 주안동 1501-1 지하층 101호 34.77㎡	다세대	33,000,000 33,000,000	
2014타경 15417	1	남동구 만수동 111-152 3층 302호 34.66㎡	다세대	75,000,000 75,00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4타경 15806	1	계양구 장제로 914-12, 1동 2층 201호 [별방동, 힐타운] 52.89㎡	다세대	106,000,000 106,000,000	
2014타경 16915	1	남구 수봉북로12번길 92, 3층 302호 50.5㎡	다세대	118,000,000 118,000,000	
2014타경 17321	1	부평구 경인로834번길 75, 6동 5층 503호 [부평동, 뉴정일그린타운] 35.04㎡	다세대	70,000,000 70,000,000	
2014타경 17505	1	남구 수봉남로5번길 47-9, 3층 302호 [문현동, 성신빌라] 49.41㎡	다세대	90,000,000 90,000,000	외벽에성신아트맨센스로표시되었음
2014타경 19877	1	강화군 강화읍 관천리 243-4 2층 202호 67.65㎡	다세대	114,000,000 114,000,000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18539	1	중구 운남동 1530-1 292.1㎡	대	236,601,000 236,601,000	소유자미상의건설
	2	동소 1530-2 292.2㎡	대	236,601,000 236,682,000	가설채적제되었음
[상가/오피스텔]					
2013타경 102574	1	중구 북성동1가 98-260 281.6㎡	대	784,289,570 784,289,570	일괄매각, 제치외 건물포함
2014타경 19211	1	중구 월미문화로 27 1층36평6층6작 2층36평6층6작 지하실 11평7층7작 점포 15평6작 제치외 옥탑 등 37㎡	대	583,725,200 583,725,200	일괄매각, 제치외 건물포함
[기타]					
2013타경 100035	1	중구 문북동 15-47 554㎡	임야	302,286,000 302,286,000	일괄매각, 목록1필터하계부지조성되어있는상태로건축허가특한것으로조사됨, 목록2,4,5,10현황도로, 목록2공유자567분의10구기정지분전부[간구69번], 목록3공유자526분의8구기정지분전부[간구69번], 목록4공유자526분의8구기정지분전부[간구69번], 목록5공유자444분의7구기정지분전부[간구69번]
		동소 15-105 567㎡	임야		
		동소 15-106 428㎡	임야		
		동소 15-107 526㎡	임야		
		동소 15-108 444㎡	임야		
		동소 15-109 1348㎡ [공유자1348분의20구기정지분전부[간구69번]]	도로		
		동소 15-110 1354㎡ [공유자1354분의20구기정지분전부[간구69번]]	도로		
		동소 15-111 681㎡ [공유자681분의10구기정지분전부[간구69번]]	도로		
		동소 15-112 328㎡ [공유자328분의5구기정지분전부[간구69번]]	도로		
		동소 15-113 126㎡ [공유자126분의2구기정지분전부[간구69번]]	임야		
		동소 15-114 342㎡ [공유자342분의5구기정지분전부[간구69번]]	도로		
2014타경 2480	1	남동구 고잔동 686-7 남동우리타운관광지 디 2층 214호 339.82㎡ [현황합법건축물 대장상조214호]	기타	300,000,000 300,000,000	도지발도등기있음, 공장으로이용중

● 공고한 부동산의 연적 표시는 실례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납 배차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 ② 공유자가 민사청결명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권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권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4. 10. 1.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10. 8. [수] 14:00
4. 매각장소 : 인천지방법원 입찰장 제219호
5. 매각방법
 - ① 입찰방식에 비하여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과 함께 입찰서류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은 최저매각가격의 1할(10%)이상 또는 해당되는 금액기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자기보증금위탁계좌를 제공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하여 넣는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입찰서류 투입이 종료된 관방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일로부터 삼일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자선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참가자 증표의 즉시 반환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① 최고가 가격으로 입찰한 상황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채권을 상실한다. 다만, 매각허가일과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배분금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제채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 ① 매각허가를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권장, 가담부등은 소유에 관계없이 몰취함으로써 소멸된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양도나 가담부등 및 담보권 등 등록사항은 등록부등 또는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기부등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하고, 국민주택재판장판결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속취하여 준다.
 -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해당항목의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 사항
 - ① 매각허가 주에 모든 상기내용에 최선순위의 지분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등기말신고일을 하고 그후 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외 부동산인물 대한 입찰자나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에 매수인이 갚아야하여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 ② 입찰인도를 열람할 채권자가 위하여 매각허가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상세서, 현재조서보고서 및 명세서와 사본 등을 우편발행 인사집합(신청)에 비치하여 열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③ 특별매각조건 내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입찰보증금 내오음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소유권이전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요구되는 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일 당일 열람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시개발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하지 않음이나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⑥ 공고한 물건명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 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의 최종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최종의 매각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분증과 함께 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우편발행 게시판에 공고나 집행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⑨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go.kr [법원공고] → 법원행정청법선석] → 부동산 총합리자에서 공고사항의 열람 가능한 열람방법 열람 제공하도록 하여지고, 아니한 것을 국민안면명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다시 그 중에 사본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매각대금과 상환이내 하고, 대금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관청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9. 17.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임용택

신비로운 자연 감탄... “호연지기 품고 왔어요”



1 'mountain blanket'(마운틴 블랭킷) 테이블마운틴에 구름이 흐르는 초자연적인 현상.



2 아프리카 펭귄 서식지인 볼더스 비치.

무지개의 나라... 희망을 찾아서 ③ 아쉬운 작별 뒤 만난 케이프타운의 속살 <끝>

임부멜와노 학교에서 봉사 일정을 모두 마친 우리 일행은 현지 학생들과 아쉬운 작별을 했다. 그동안 틈틈이 만나 정을 쌓아 왔던 봉사단과 현지 학생들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봉사단은 현지 선생님·학생들의 아쉬운 환호 속에 손을 흔들며 이별에 답했다.

봉사 일정 마치고 문화탐방... 테이블마운틴·물개섬 등 비경 탄생

지난달 참가자 사후 모임...장단점 등 토론·정리 ‘유종의 미’ 거둬



희망봉(아프리카 서남단에 위치).

이윽고 기다리던 문화 탐방이 시작됐다. 햇살·바람·바다 등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케이프타운’을 완성하고 있다. ‘마더 시티(Mother City)’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케이프타운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 듯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도양과 대서양을 함께 품고 있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케이프타운의 심장 ‘테이블 마운틴’, 이 산은 해발 1086m이다. 케이프타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테이블마운틴은 절경이 많고 그에 걸맞는 전설을 간직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산이다. 산 정상에는 수 km의 평지가 펼쳐져 있어 현재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그리 높지 않지만 바다를 따라 솟아 있는 암석의 장엄함에 입이 벌어진다. 이 산을 화성시 글로벌 자원봉사단이 정복했다. 단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정상에 올라 인도양과 대서양을 내려다보며 잠깐 호연지기를 키웠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정수영 선생님은 “봉사 후 힘들게 오른 산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답을 했다. 특히 내려다 본 헛배이 해변은 한폭의 풍경을 보는 듯하다.

봉사 후 선물로 모자람이 없었다”며 감동을 이어 갔다. 봉사단은 10일 째 되는 날 희망봉을 만났다. 희망봉 정상으로 오르는 곤돌라를 탔지만 내려오는 길은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트레킹(약 5km)을 했다. 트레킹 중 날씨가 변덕을 부렸지만 그 자연 현상도 너무 아름다웠다 마치 동화책 속에 있는 느낌이었다. 이 외에도 케스텐보쉬 식물원, 캠프베이, 듀어커 섬(물개섬), 워터프론트, 만델라 감옥 등 숨어 있는 비경과 이곳의 문화를 탐방했다. 지난 8월9일 모든 일정을 마친 화성시 글로벌 자원봉사단은 다음 날 10일 이른 아침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15일간 가족과 떨어져 있던 부모님과 학생들은 서로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고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부둥켜안았다.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선생님과 학생들은 지난 8월30일 나래울(화성시 소재)에서 사후 모임을 갖고 이번 자원봉사에 대해 느낀 점과 건의 사항 장점을 단점 특히 보완 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고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유종의 미를 거뒀다. /글·사진=이성필 기자 splee@incheonilbo.com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는

2012년부터 청소년봉사에 물품 후원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는 ‘제3회 화성시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에 참여해 남아공(케이프타운) 임부멜와노 학교에 컴퓨터와 복사기 등 사무용품들을 지원했다. 농협 화성시지부는 2012년부터 캄보디아, 2013년 아프리카(케냐) 올해 남아공까지 화성이 청소년 글로벌 자원봉사에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관계자는 “농협 화성시지부의 후원으로 봉사가 더욱 의미가 크다”며 농협 화성시지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행사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성필 기자 splee@incheonilbo.com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가 남아공(케이프타운) 임부멜와노 학교에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 학생들 소감

5조 “자신감·깨달음 얻었다”

▲김현경(중2)=일상에 큰 일(?)을 만났다. 흑인지역에서 자원봉사, 도전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소득이 있었다. 평소 활발한 나지만 이번엔 차원이 틀린 경험을 했다. 봉사와 소통을 통해 자신감과 소중한 추억을 얻었다.

▲유해림(고3)=이번 케이프타운 봉사를 통해 내가 갖고 있던 봉사의 개념이 무너졌다. 나누는 것이 봉사라는 것을 느꼈다. 되레 배워 온 것이 더 많은 날이었다.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 화성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지혜(고1)=많은 것을 보고 눈과 가슴에 담아간다. 새로운 사람들과 낯선 곳에 가야한다는 두려움 설렘, 그리고 그곳에서 추억, 아쉬움으로 케이프타운을 떠나기 전 잠을 설치기도 했다. 현지 학생들과 소통으로 문화도 함께 했다. 평생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추억이 생겨 기쁘다.

▲이준영(중3)=소감을 적고 있는 난 많은 생각이 쌍곡선을 잇는다. 꼭! 왜!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을까? 이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매사 행동해야겠다. 난 꼭 이번 같은 행사를 다시 했으면 한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생활해야겠다.

▲김인서(고1)=화성시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정말 놀랐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집을 떠나고 먼 나라를 가 봉사를 하고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함께 했던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6조 “꿈같은 시간... 정말 감사”

▲김준석(고1)=‘남아공 케이프타운’이라!! 내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와 다르다는 현실에 잠깐 놀랐다. 현지 학생들과 어울리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이번 봉사는 아마 내가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민주(고1)=봉사단이란 이름으로 낯선 남아공을 방문해 봉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귀한 시간을 귀하게 쓰고 싶어 최선을 다했다. 이 느낌 그대로 한국에서도 열심히 생활을 이어 보리라.

▲유예영(중2)=해외에서 새로운 경험과 마주했다. 단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또 현지 학생들을 보며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었다. 이번 활동으로 나라와 집 특히 부모님이 있어 얼마나 기쁘지 알게 됐다.

▲김하얀(고1)=남아공 자원봉사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벗은 것 같다. 현지 학생들의 친절함에 감사한다. 처음 고민이 많았는데 일정을 마친 지금 무엇보다도 바쁠 수 없는 소중함을 얻었다. 화성시와 그린티쳐스, 인천일보측에 감사하다.

▲이진주(중3)=처음엔 부모님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에 신났지만 며칠 후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 이번 봉사를 통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고집보다 다수의 견이 이롭단 것도 알았다.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이성필 기자 splee@incheonilbo.com



8 13일자 문화 탐방 중 우연히 들린 케이프타운 와이너리.

구성성명학이란?

성명학교실



예지연

다지음한글구성성명학회 회장

인간은 항상 이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 이름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름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자녀가 평생 동안 비통과 좌절 속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름을 잘못 지어준 부모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면 이름은 성격을 형성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성공의 열쇠가 되며, 또한 개인의 운세까지 예지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패를 좌우하는 이름이 매우 중요하네, 난립된 성명학 이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래서 구성성명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보도록 하겠다.

성명학에서는 성(姓)이 하늘(天)이고 부(父)며, 이름의 끝 글자는 땅(地)을 표시하며 모(母)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다. 무엇보다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가 있음을 알고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가운데 글자를 제일 중요한 부위로 여겨 이를 중심 명문이라 하고 이 명문에서 성격이 형성된다. 따라서 성격에 의해 운명이 만들어지고 성공이 가능되기 때문에 이름이 성공의 열쇠가 된다.

시중에 나온 성명학 이론이 매우 많지만 우리 한글구성성명학만큼 인간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학설은 없다.

한글구성성명학이란 입구(口), 소리 성(聲)이다. 이는 평생을 통해 입에서 불리워지는 이름에서 발현되는 소리에너지에 뜻한다. 이를 다른 말로 파동이라 하는데, 이러한 소리энер지를 오형으로 분류해 이를 사주 푸는 방식 그대로 성명학에 접목해 운세를 풀이하는 성명방식이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사주를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운명을 거의 80% 이상 예측할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주대로 이름을 짓는다는 사실이다. 유명한 작명가나 철학관에서 지었던 또한 각자 부모 스스로가 지었던 사주대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氣) 작용이다. 기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무섭게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개명을 하더라도 사주대로 이름을 짓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사주를 보지 않아도 사주가 어떻다는 걸 거의 알게 된다.

“TV특강”을 유튜브에 올려놓았더니 유튜브를 보고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60년 庚子생인 중년 여성도 유튜브를 보고 왔더니 자신의 이름에 대해 궁금해 했다.

“최태정”이란 이름을 풀어보니 1.6에 의해 재물이 파괴되고, 중첩된 6.6에 의해 파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7에 의해 남편 덕이 없다. 생극 도표를 갖고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해주자, 놀라는 표정과 함께 그렇잖아도 어릴 가나 자신의 이름이 나쁘다 해서 파동성명학으로 짓는다는 대구 모 업체에서 ‘최수연’으로 개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수연이란 이름은 본명인 ‘태정’보다 더욱 흉한 흉조를 띄었다. 중첩된 1.2(형제)에 의해 재물이 파괴되고, 3.8과 중첩된 4.4(자식)가 8(남편)을 심하게 극하고 있어 더욱 남편을 파괴시켰다. 그나마 본명은 성을 뺀 ‘태정’으로만 부르면 남편을 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명한 ‘수연’은 아예 3.8과 4.4.8에 의해 죽었다 깨어나도 살지 못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도표를 보고 설명해 주었더니 한동안 아무말도 없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어조로 부파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본명에 이어 개명한 이름도 이렇듯 같은 구조인걸 보면 사주를 보지 않아도 어떻게 대강 감이 잡히게된다. 그래서 생월(生月)과 일시(日時)를 물었다. 그랬더니 역시 예상한대로 사주를 분석해 보니 재물이 없고, 남편덕이 없는 사주였다.



지용백 칼럼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을까요? 당신의 생애에 길잡이가 된 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단 한 권의 책을 권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에 상응하는 좋은 답을 준 적이 거의 없다.

책을 왜 읽어야 하나? 폭넓은 지식욕을 충족시키고 그 성취감을 위한 것이라면 컴퓨터나 컴퓨터 축소판인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기술만 있으면 충분하다. 책을 많이 읽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을 얻어 이에 따르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더 더욱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책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거만금의 재산을 쌓은 사람도 많고, 대학을 나온 후에는 책하고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 저명인사가 되어 장관·국회의원·재력가 그리고 선출직에 당선된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된다.

이데올로기·사조·철학을 읽고 잘 정리하여 암기한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것도 못된다. 도서관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읽어 달라고 기다리는 고전에는 동서양 지식의 보고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런 귀한 책들도 이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그대로 옮겨져 검색하는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다. 때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토막지식이 학문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절실함에서 깨우친 상식에 미치지 못하고, 서로 연결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 이웃이 평생의 책이다

〈논어(論語)〉 첫 장 첫 줄에 나오는 글은 논어 전체를 관통하는 종지(宗旨)와 같은 글이다.

學而時習之,不亦說乎.

배우고 삶에서 제때에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책을 읽고 배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워야 하며 그 속에서 얻은 지식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 슬기로 돌아난다면 이것이 진정한 학문이요, 배움이 아니겠는가. 독서라고 다 같은 독서가 아니다. 읽어 즐거움이 없다면 어떻게 지루하기만 한 긴 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며 또 즐거움이 없으면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정곡(正鵠)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책을 보고 읽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책과 지속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다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에 나와서 책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종이로 된 책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책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마다 그 얼굴, 행동, 살아온 과거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의 생활을 살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책이 어디에 있겠는가.

1918년 중국 절강성에서 태어나 얼마 전 (2012년) 95세를 일기로 작고한 세계적 대석학 남회근(南懷瑾)의 다음과 같은 글이 마음에 쏙힌다.

“학문은 문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학문은 인생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것이며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닦는다는 것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제 어디서나 생활하는 가운데 마주치는 모든 것이 책이며 공부인 것입니다”

지난 7월 서울을 다녀간 중국공산당 주석 시

진핑(習近平)이 외교적 수사로 “백금을 주고 집을 사고, 천금을 주고 이웃을 사며 큰돈을 준다 해도 좋은 이웃과는 바꿀 수 없다(百金買屋, 千金買隣, 好隣居金不換)”라고 했다. 자신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자신은 항상 좋고 훌륭한 책을 읽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지식이 행동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화석화되어 있으며 쓸모없는 종이 쪽지요, 악취 풍기는 고인 물에 불과하다. 자기가 아는 만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식과 학문의 생명이다.

생명 없는 지식과 학문은 자신을 나타내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 2300여년 전에 저술된 순자(荀子, BC298-BC238)의 「유효(儒效)」편에 나오는 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듣지 못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좋다. 듣는 것보다는 그것을 보는 것이 좋다. 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좋다. 아는 것보다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학문을 실천할 때에 이르러야 종착점에 다다른다. 실천해야만 분명해지며 분명해지면 성인이 된다. 성인은 인의(仁義)를 근본으로 삼고 시비를 합당하게 가지며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터럭만한 어긋남도 없다. 거기에는 별다른 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천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학문·지식인은 높은 산정에 잠시 머무르는 구름과 같으며 바른 삶을 실천에 옮기면 도처에서 책이 내 가슴으로, 머리로 오게 되어 있으므로 힘들게 어떤 책을 읽을까 묻지 않아도 된다. 말과 지식은 넘쳐나고, 검색은 있되 사색은 없는 시대, 오직 행동만이 귀한 것이며 책과 지식은 그 다음의 일이다.

내 생각엔



신우철

인천남동경향신문 경무과 경장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19일(금)부터 개막이 되지만, 이미 13일부터 시작된 각종 예선경기로 인해 인천경찰은 12일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되었다.

아시안게임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통성 및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국민 통합과

성숙한 시민의식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개최

화합을 바탕으로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가적 체육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아시안게임은 우리나라가 스포츠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지자체 및 국민들 모두 하나가 되어 국가적 큰 행사를 치러야 하겠다.

하지만,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점은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법질서 인식 수준에 대해 한국

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시안게임 개최국으로서 미흡할 수 없는 일이다. 법질서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필자는 어제 차량 운전 중에 앞의 차량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에 담배피우기를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목격하였다.

이러한 경범죄 행위 하나하나가 아시안게임을 위해 방문한 세계 각

국의 사람들에게 비추어 진다면 후퇴한 한국, 더 나아가 후퇴한 인천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법질서 확립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이후로 모처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외교 논조는 인천일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www.incheonilbo.com

400-034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226(영동4가 18-1)

442-834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7번길 5 (안계동 963 청수빌딩 2층 경기본사)

회장 김정섭

발행·편집인 박길상

주필 조우성

편집국장 백종환

대표전화 인천 032-4520-114 경기 031-232-2288 광고접수 032-4520-151 구독신청 032-4520-127

1988년 4월 25일 가-49호 등록 / 인천일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0,000원/한부 500원

인천최고의 청각난청재활 중심



덴마크 오티콘

세계 1위 올림없는 덴마크 보청기



세계판매1위
오티콘보청기/최고의 기술력

[골드만삭스, 유럽보청기협회 공인]

KBS 대류 “100년의 기업방영”

111년 전통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청각학석사, 청능재활 중심

가격만족, 소리만족, 품질만족

노인성 난청예방 무료청력검사

- 1 소음속에서 올림없이 편안한청취 만족
- 2 착한가격, 자연스러운청취[2년 무상보증]
- 3 탁월한 TV 청취, 강의, 설교에 우수한 만족도
- 4 노인성난청, 유소아난청
- 5 소음성난청 최고의 만족도 오티콘보청기
- 6 인천, 안산 최고 청각난청재활 중심

인천부평 032)502 4801 주안 032)875 4801 안산 031)482 4801

부평 : 부평구 부평동 549-6 도시프라자빌딩 4층 402호 [부평역29번출구, 부평문고옆, 김경문실업팀] 주안 : 남구 주안동 231-11 주안우신빌딩 7층 703호 [주안역12번출구 [남광정]

한가위 가족 이벤트

하나 신제품, NERA[네라], RIA[리아] 특가 공급

[현존 중급 최강의 보청기/ 한정수량 10]

앙이구입시 배터리 5박스지급

보상판매 최대 [50만원]

둘 초저가 디지털보청기 49만, 65만 [한정수량 5]

독일 귀걸이 제품 25만 [한정수량 5]

셋 수입정품 배터리 할인 25,000원 15,000원(1인2박스)

신규 보청기 구입시 30 ~ 50% 할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speedguy82

▶우대 : 청각장애자, 농아인,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공무원, 목회자, 자원봉사자

고악형, 귀속형, 오픈귀걸이, 일만귀걸이

[지역 최저가부터 최고가격까지 한변에]

노인성난청 / 소음성난청

유소아난청 / 편측난청

이명난청 / 전음성난청

청각학석사전공의 보청기, 청각전문가



주택·상가·공장 신축, 증축

- 완벽시공
- 원가절감
- 하자보증

주택:평당 250~270만원

상가:평당 220~240만원

공장:평당 130~150만원

주택·상가 건축

외부맞구조율: <철근+콘크리트> 외장마감제

내부마감:아파트형 고급내장마감

공장·창고 건축

철구조물+불연재판벽 (높은층고+공기단축+완벽방수)

☆공장 및 주택, 증축 및 보수공사☆

내부구조 변경공사, 인테리어공사, 토목공사, 외벽 및 옥상 유엔방 방수공사



德壽建設

인천시 동구 송림동 67-11

T.032)764-0518 / 휴대폰:010-5242-6533

정정공고

본지 2014년 8월 26일자 (주)나이에센서와 (주)동호와 경운전기(주)의 분할합병공고중, “갑” (주)나이에센씨의 대표이사 정일수를 대표이사 정일권으로 정정 공고함.

해산 및 재원신고 공고(2차)

당 회사는 2014년 9월 3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특별결의하고 해산안을 선임하여 동년 9월 11일 해산통지를 완료하였으므로 법원에 의하여 재원이 있으면서 이 회가 개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재원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회산에서 제외됩니다.

2014년 9월 17일

주식회사 다미건설 청산인 이택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156 거성빌딩 9층

상속한정승인공고

공고인은 망 강홍순(490203-2xxxxxx)의 상속재산 한정승인자로 민법110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공고기원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공고기일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 외경부지방법원 2014년단 1042.

2014년단 1035 상속한정승인

공 고 인 : 김태호, 김요선

한정승인 수리일: 2014. 9. 5일자

공고기간 : 2014년 9월 17일 ~ 2014년 9월 23일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247 휴먼시아 3207동 801호(영통구 하동 A 19블

록 3207동 801호)

전 화 : 010-6556-2300

다민행사는 지식(Knowledge)을 바탕으로 전문기술의 대를 이어 다양한 생리를 통해 민생에는 원고행 형사기록 출판물 제작지

이4D 인쇄의 새로운 호파적인 출판물을 직접 소개합니다.

이4D 인쇄의 새로운 호파적인 출판물을 직접 소개합니다.

이4D 인쇄의 새로운 호파적인 출판물을 직접 소개합니다.

시론

논문의 현실과 학문의 발전



모세종
인하대 교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수한 논문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국내공인학술지의 평가 방법을 논문의 질로만 한정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지 평가의 초점을 논문심사 제도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옥석을 가려낼 만한 권위자의 참여 없이 제대로 된 논문심사를 담보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논문이란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논문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상황에서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다. 논문은 그저 평범하거나 형식만을 갖춘 것들이 많다. 그런 논문들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의 검증재료로 이용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논문이란 국회의원들이 출산기념회를 위해 내는 책들과 비슷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학위논문이 심사를 통과해 나온 것인데 표절이니 뭐니 하며 심사자는 빼고 저자만을 추궁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일이다.

많은 학술지의 논문들은 연구가 직업인 교수들이 국가나 대학의 연구비를 받고 수행한 것들이지만, 혹 검증이라도 한다면 평가받을 만한 논문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연구자로서의 업적을 평가받아 장관후보자가 된 교수의 논문정도는 훌륭한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런 교수들의 논문조차도 매번 표절, 중복게재, 연구비 부당수령 등에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논문의 질까지는 평가하지 않아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논문은 창의적 결과물인 만큼 시도 때도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수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만이 소개되고 칭찬 받는 것이다. 그저 시간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연구라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논문으로 양산되어 교수들의 업적으로 되고 있다. 당연히 교수들은 좋은 논문을 써야 하지만, 논문을 양으로 평가받는 현실에서는 질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쓰레기 같은 서적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 만 논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쓰레기처럼 문허버릴 수백편의 논문보다는 영원히 남을 단 한편의 논문을 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논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가장 훌륭한 학자라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가치 없는 논문은 안 내는 것이 학자의 양심인데, 이도 무너진 지 오래이다.

모든 연구자에게 논문을 요구하니 학회가 난립하게 되고

결국 많은 학회지의 논문모집과 심사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수한 논문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국내공인학술지의 평가방법을 논문의 질로만 한정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지 평가의 초점을 논문심사 제도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옥석을 가려낼 만한 권위자의 참여 없이 제대로 된 논문심사를 담보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심사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등도 훌륭한 심사자가 있고 나서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학문의 발전을 꾀하려면 논문은 논문대로 질을 높여야 하지만, 전공분야에 따른 다양한 연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학문에 따라 요구하는 결과 또한 다양해야 한다. 분야마다 평가해야할 항목이 다른데, 논문 하나만을 최고의 가치인양 몰아가서는 학문의 발전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된다. 예체능의 실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논문보다 더 중요한 결과물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 논문만을 요구하게 되면, 논문은 생존을 위한 형식적 수단으로 전락하여, 결국 나와서는 안 될 논문들이 양산되게 된다. 논문 외에 저서, 번역, 실기 등이 업적으로 인정받아야 만이 각 전문분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연구는 전공분야에 따라 평가해야할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대상도 그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연구계획서로 연구비지원을 결정하는 평가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연구가 계획서처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가 계획서처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세상에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연구를 결과물로 평가하지 않는 제도 하에서는 연구비를 받고난 후 결과에 상관없이 논문을 써내야 하니 역시 논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세금낭비가 아닌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관리 제도를 기대해본다.

사설

인천AG 섬세하게 준비를

인천아시아경제임이 열리는 동안 실행될 예정인 차량2부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AG조직위는 대회 기간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수날은 출수차량이, 짝수 날은 짝수 차량만 운행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들이 손쉽게 제외 차량으로 등록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산하 관공서에서는 실제 조건에 맞지 않는 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면서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서가 부족할 정도로 제외 차량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초 시는 2부제 제외차량을 10만대 정도로만 예상했다. 그런데 현재 9만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등록을 마쳤으며, 조금 더 지나면 10만대를 훌쩍 넘을 것이라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조직위는 대회 기간 다른 지역에서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문객을 약 2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외 차량에 등록된 수는 2만7000여대에 그치고 있다. 다른 지역 방문객을 배려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차량2부제가 국제행사인 인천AG를 인천만의 축제로

전락시켰다는 얘기가 나올법한 대목이다. 인천 곳곳의 시설들도 인천AG손님들을 맞이할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이다. 인천 대도 관광지원 월미문화의 거리의 경우 공사 자재와 쓰레기가 쌓여있고 돌들이 길을 가로막아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사에 쓰이는 시멘트 등이 방치돼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문화행사 주체자들에게 대한 휴대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AG는 물론 스포츠가 중심이 되지만 이 기간 열리는 문화행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천AG조직위가 문화행사를 둘러리정도로 생각하다보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세계차문화대전의 경우 서구 주경기장의 지정된 장소를 쓰기로 했는데, 조직위가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며 주최측의 행사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도 잘 될까 말까 하는 대회준비가 이렇게 서툴러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인천AG는 스포츠경기만 열리는 것이 아니다. 문화와 질서가 공존하며 메인행사와 함께 불나래처럼 물려야 성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천시의회 각성해야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겨우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세계에 내놔야 할 중요한 때다. 유정복 인천시장부터 어린 자원봉사자 학생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이번 대회에 손을 보태고 있다. 반면 이런 때에 시민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된 인천시의원들의 행태는 그저 한심하기만 하다.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개최했다. 회기를 마무리하고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여야는 온갖 문제들을 뒤섞어 서로를 비판하는 데 몰두했다. 물론 합당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선심성 예산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 집행부는 물론 상임위원회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예결위가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포함시켰다.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의결을 앞두고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더 일찍 언급하거나 다르게 처신할 수 있던 문제가 있었다. 배국환 정부부시장 임용, 각종 위원회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배제 등이 그렇다. 예결위의 혁신학교 예산 삭감이 여야의 갈등에 불

을 지르자, 뒤늦게 모든 문제를 통틀어 제기한 모양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배 부시장 임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회의에서 말로 할 게 아니라 고발, 감사 신청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했다.

새누리당도 다수당으로서 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물밑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새누리당에 피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문제가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견을 시민과 괴리된 생각으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황당할 발언도 있었다. 노경수 의장은 “결론적으로 의장이 독선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오늘은 인천사륙작전 행사가 있는 중요한 날인데 새정치 의원들은 공공롭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혀 다른 소재를 끌고 의 비판을 비판으로 덮는 전형적인 부적절한 화법이다.

전세계의 눈이 쏠려있는 대회를 앞두고 시의회의 분란은 적절치 않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양당이 합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우성의 **미추홀**
(1224)

체육의 도시 인천

우리 고장 인천은 근대 스포츠 문화의 발신지였다. 1883년 제물포가 개항장으로 지정되자 난생 처음 보는 신문물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여행가, 선교사, 사업가, 외교관, 정치인, 군인, 의사 등이 속속 인천에 발을 내디디며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개항 직전인 1882년 6월 인천을 찾은 영국 군함 플라잉피시 호도 있었다. 정박 중 수병들이 옷더굴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인 최초의 축구경기였고, 그때 주고 간 공으로 시합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축구사를 써왔던 것이다. ▶야구가 국내에 들어온 것도 인천을 통해서였다. 신식 스포츠인 ‘베이스볼’도 개화 문물의 하나였다. 과거의 통설로는 1905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의 총무였던 필립 질레트가 가르친 것이 효시라고 하지만, 인천에서는 이미 1899년에 ‘베이스볼’ 경기를 하고 있었다. ▶인천고(仁川高)의 전신인 인천영어야학교의 한 학생은 1899년 2월3일자 일기에서 “4시경부터 중상(中上) 군을 불러

내어 일언종(一蓮宗·옛 신흥초등학교 옆의 절) 앞 광장에서 함께 ‘베이스볼’이라는 서양식공치기를 하고 5시경에 돌아와 목욕탕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록 인천 거주 일본 학생의 일기이나, 이것이 ‘국내 최초의 야구(野球) 기록’인 것이다. ▶마라톤 역시 인천의 주요한 스포츠로 각광을 받았다. 그에는 지정적인 영향이 컸다. 경인간에 넓은 신작로가 개설된 후 인천에서 출발할 경우 반듯한 마라톤 정구코스가 나왔던 것이다.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도로 경주에 적합한 도로가 아직 타 지역에는 없었다. 이따금 서울을 한 바퀴 도는 ‘경성일주대회’도 열렸지만, 인천-서울 간을 달리는 역전(驛傳)경주대회가 매년 열렸고, 그 같은 풍토 속에서 자란 각 학교의 육상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도 했다. ▶그처럼 인천은 근대 스포츠를 화려하게 꽃피운 체육의 도시였다. 그로부터 한 세기여가 지난 오늘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감개무량한 역사적인 귀결이다. 모두 모두 손잡고, 이 대회를 역사적인 축제로 승화시켜야겠다. /주필

오늘의 소사

▶덕적 목덕도 근해 어로중이던 아산침몰 3명 익사 <1955> ▶한불화학 인천공장 준공 <1976> ▶서울 올림픽 개막 <1988> ▶인천지검장에 인천 출신 김규환씨 <1993> ▶전국총별 베드민턴서 인천여고 인하대학 우승 <1993> ▶서해서 대규모 해군 기동훈련 <1993> ▶황해도 평산 소놀음 공 공연 월미도서 <1995> ▶제1회 강화군농민대학 졸업식 <1999>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개관 <2003> /자료실

대표전화 032)4520-114

www.incheonilbo.co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8제>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 각 물 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아파트]					
2014타경 34777	1	서구 왕길동 오류지구79블럭1로트 경단차 011단지 106동 7층 705호 84.341㎡	아파트	253,000,000	대지권미등기, 최 저매각가격에 포함
2014타경 40451	1	부평구 부평동 492-5 송림주택 201동 6층 602호 50.61㎡	아파트	105,000,000 105,000,000	
2014타경 41232	1	서구 왕길동 오류지구81블럭1로트 경단차 012단지 206동 11층 1103호 84.743㎡	아파트	300,000,000 300,000,000	대지권미등기, 최 저매각가격에 포함
2014타경 44118	1	서구 마전동마전지구1블럭1,2로트 마전4차 동림아이비엔 805동 3층 304호 84.325㎡	아파트	207,000,000 207,000,000	대지권미등기, 최 저매각가격에 포함
2014타경 44743	1	계양구길대로 83, 203동 22층 2204호 [효 성동, 현대아파트] 128.96㎡	아파트	274,000,000 274,000,000	
2014타경 46671	1	연수구독매로 58, 207동 15층 1502호 [옥 련동, 현대2차아파트] 84.600㎡	아파트	240,000,000 240,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3타경 72796	1	중구 신흥동1가 34-74 65.4㎡ 중구 인종로108번길 30-46 36.42㎡	대 단독주택	83,355,600 83,355,600	일괄매각
2014타경 43863	1	중진군 영흥면 선재리 108-9 202㎡ 중진군 영흥면 선재로34번길 53 107.07㎡ 제시외 참고 등 9.162㎡ [제시외건물포함]	대 단독주택	21,241,780 21,241,780	일괄매각, 공유지 11번의2허원호지 분전부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3타경 66388	1	계양구 정제로853번길 8, 5층 501호 [일학 동, 백운주택] 72.13㎡	다세대	142,000,000 142,000,000	
2014타경 20648	1	남동구 간석동 419-17 1층 102호 32.89㎡	다세대	63,000,000 63,000,000	
	2	남동구 석산로62번길 20-6, 지층 2호 36.5 1㎡	다세대	45,000,000 45,000,000	
2014타경 28697	1	남동구 간석로50번길 5, 2층 201호 59.19 ㎡ 부속건물 지하실 7호 11.78㎡	다세대	90,000,000 90,000,000	
2014타경 29928	1	서구 가경동 561-17 2층 202호 36.54㎡	다세대	80,000,000 80,00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2014타경 31112	1	부평구 청천동 48-389 3층 301호 42.25㎡	다세대	70,000,000	70,000,000
2014타경 34357	1	남구 독배로404번길 9, 4층 402호 39.42㎡	다세대	75,000,000	75,000,000
2014타경 38625	1	부평구 영성동로15번길 30-7, 지하층 2호 41.61㎡	다세대	50,000,000	50,000,000
2014타경 41027	1	계양구 계산대로5번길 18-1, 지하층 1호 35.68㎡	다세대	40,000,000	40,000,000
2014타경 41782	1	계양구 작전동 476-27 하이빌리티타운 115동 4층 402호 61.96㎡	다세대	125,000,000	125,000,000
2014타경 43047	1	계양구 송림동 2-118 1층 101호 35.56㎡	다세대	65,000,000	65,000,000
2014타경 45005	1	서구 대평로8번길 9, 4층 404호 42.94㎡	다세대	95,000,000	95,000,000
2014타경 46190	1	서구 경양로 36, 3층 301호 68.85㎡	다세대	165,000,000	165,000,000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26394	1	광화군 화도면 내리 1383 1468㎡	답	168,820,000	168,820,000
	2	동소 1384 1098㎡	답	119,682,000	119,682,000
	3	동소 1385 529㎡	답	57,661,000	57,661,000
	4	동소 1391-1 569㎡ 지시외 참고 등 87㎡ [소유자미상미등기주택및창고[지시외건물] 지시외건물포함]	전	66,886,250	66,886,250
	5	동소 1390-3 76㎡	전	8,740,000	8,740,000
	6	동소 1391-2 532㎡ 지시외 참고 등 95㎡ [소유자미상미등기주택및창고[지시외건물] 지시외, 매각제외, 법정지상권선점여지불분명]	대	84,688,000	84,688,000
2014타경 36636	1	중구 무의동 53-11 234㎡ 동소 53-12 2910㎡	답	556,560,000	556,560,000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4타경 43313	1	동구 송림동 50-37 68.4㎡ 동구 싯골로162번길 20-1 1층43.97㎡ 2층43.97㎡ 지시외 참고 등 59.1㎡	대 주택점포	185,778,900	185,778,9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농지매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절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공유지가 민사청결명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는 경매가 공판되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매각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주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3. 매각기일 : 2014. 10. 1. [수] 10:00
4. 매각장소 : 2014. 10. 8. [수] 14:00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비한지 가압결정기일에 사전보증,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여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가매수의 원(1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든 발행의 자기합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번보증취득제목을 제출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 넣는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확인서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저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절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매각대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결정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리권이나 가압결정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특약이 지장고지서를 납부한 후 등특약상소멸확인서 및 등특세영수증통지서를 첨부하고, 주민등록전환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처리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어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특수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매각절정기일까지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매수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각절정기일까지 매수특약자격을 얻을 수 없으며,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임대계약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③ 공고된 물건중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정당한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④ 신청에 공고되는 물량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숙명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유리한 계약서와 공고나 법원에 비한 매각절정기일에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⑤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검색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할 정도로 법률상 제공하도록 할지라도 열람하지 않고 이를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할 것으로서, 특히 그 중 열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관상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관하여서 게시한 매각기일과 공고나 비한 매각절정기일 등을 직접 확인하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9. 17.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익



양벌초, 조억동 광주시장에 감사패

조억동 광주시장이 지난 15일 시장실에서 양벌초등학교 운상매 교장 일행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교장은 “장지-매산간 도로 중 양벌리 구간 개통에 따라 학교로의 접근성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와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 횡단보도 도색작업 등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증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광주=정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제7회 남양주 한강걷기 페스티벌

남양주시는 최근 삼패동 한강시민공원에서 ‘제7회 남양주 한강걷기 페스티벌’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면 두배가 되는 나눔 ‘봉사가기는 날’과 연계해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과 자원봉사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우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홍보대사 배우 이정웅씨 가족을 비롯, 약 1만명의 시민이 참가해 5km, 10km, 25km 등 3개 코스로 나눠 한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건강을 다졌다. /남양주=정학인 기자 in8488@incheonilbo.com



이천췌, 학원연합회 학폭예방 교육

이천경찰서 (서장 최영덕)는 16일 오전 이천시회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이천시 학원연합회 소속 학원장 및 강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경사 한인철)이 직접 강사로 나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핸드폰을 이용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성범죄를 사례화해 설명 자체하게 설명했다. 또 ‘성폭력 피해 내용을 학원 관계자들이 인지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 해야 한다’는 등의 법 내용 집중 홍보 하여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여주=김광섭 기자 eskim@incheonilbo.com



의정부췌,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의정부경찰서 (서장 이원정)는 16일 개학철을 맞아 신곡동 의정부초등학교 일대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교통안전공단, 시청 등 유관기관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단체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이 안내된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해 등교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 및 피켓 등을 들고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포커스 단원미술제 공모전

황금빛 가을정취 화폭에 한아름

시원상 작가 ‘대상’ ...내달 24~11월8일 단원미술관 전시

안산시는 2014 단원미술제 공모전 미술부문 대상에 시원상(38)씨의 서양화(구상) ‘A Landscape In Mind-position’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성재현(한국화), 이규선(서양화 비구상), 김대우(수채화), 이상미(판화), 유정민(공예입체), 최중갑(조각)씨가 뽑혔다. 우수상은 최서희(한국화), 이혜륜(서양화 비구상), 박양예(수채화), 이혜빈(판화), 민윤홍(사진), 박기태(조각)씨 등 6명이 선정됐다. 대상 2000만원, 최우수상 각 500만원, 우수상은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상을 수상한 서양화(구상)의 시원상씨 작품은 가을의 정취를 풍기는 갈대밭의 모습을 수평적 화면분할로 황금분할의 묘미를 잘 살렸을 뿐만 아니라 색채와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참신함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공모전에는 모두 708점이 출품돼 355점이 입상했으며 수상작은 오는 10월24



시원상 작가

일부터 11월8일까지 단원미술관 제1관에서 전시된다. 2014 단원미술제의 시상식 및 개막행사는 10월24일 단원미술관에서 진행한다. 또한 단원미술제 기간 중에는 수상작 전시뿐만 아니라 단원미술관 제2관과 야외체험장에서는 ‘풍속화가 살아 있다’라는 체험전 및 미술체험 부스전이



작품 ‘A Landscape In Mind-position’

개막일부터 3일간 열려 김홍도라는 인물을 작품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에 수상작품이 발표된 단원미술제 서예·문인화부문 수상작품 전시는 10월7일부터 12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열리며, 시상식은 10월24일 미술부문과 동시에 진행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성남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

(주)KS, 中 대형병원 의료기기 총판 획득

성남시가 지역내 수출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전략적 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의료분야 신흥시장인 중국의 대형병원 제품공급 총판권을 따내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따르면 최근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플로리다 국제의료기기박람회(2014 FIME)’에 참가해 세균자동염색기 제품을 선보인 (주)KS(대표이사 신지현)가 최근 중국과 1700만불(175억여원)의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이번 계약 성사로 (주)KS는 중국내 대형병원에서 의료기기와 용품 등을 공급하는 전문유통기업인 Beijing Eastern C&T사를 통해 세균자동염색기 3200대와 시약 3만6500세트를 향후 5년 동안 수출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계약은 대만 제품들이 주를 이루었던 중국 의료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 기업은 미생물이나 세균이 고온에 타지 않도록 처리하고 경제별로 색깔을 입히는 공간 가열방식을 채택한 첨단 기술의 자동염색기기와 시약을 개발,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다. 또 중국국립결핵통제 및 예방센터(Chinese CDC)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중국내 세 군데의 결핵연구소에서 자동염색기와 시약의 실험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성남=허찬희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탐승체험·멘토링 ...스튜어디스 ‘꿈 비상’

경북대 항공서비스과 고교생 대상 우수자 7명 선발 채용시 우선 추천

경북대학교 항공서비스과는 최근 교내 선덕관에서 항공 승무원에 관심있는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제2회 예비승무원 대회(Crew Image Queen contest)’ 예선을 치렀다. 이번 예선전에선 서류접수를 한 고교생 신청자 520여명 대부분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할 46명을 선발했다. 예선전을 치른 고교생들은 비행탐승 체험과 이미지 컨설팅, 면접 피드백, 선배들과의 멘토링 시간 등을 가졌다. 항공서비스과는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교내 문화관 콘서트홀에서 최종 합격자 7명을 선정 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이들 고교생들은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들에게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되며, 수상자는 항공사 승무원



채용시, 우선 추천권(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이스타항공)을 제공받게 된다. 경북대학교 정수연 항공서비스과 교수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참가했을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승무원의 꿈을 가지고 준비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

하남시의회 현안사업 시설점검

도로공사 현장·전통재래시장 등 방문

하남시의회(의장 김승용)는 20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미숙)를 구성, 최근 지역내 주요 현안 사업장 등 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덕풍현대아파트-동경주간 도로개설 공사현장을 시작

으로 덕풍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현장 등 10여 곳의 주요 사업장을 둘러봤다. 의원들은 각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점 등을 지적했다. 방미숙 위원장은 “미군공여지 대학교 유치문제, 미사지구 민원 대책, 현안1·2부지 추진현황 등 시민의 주요 관심대상사업과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확인할 예정”이라며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청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정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프로필

문광부 국장·안양대 교수 역임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5대 대표이사에 조창희(61)씨가 임명됐다. 경기문화재단은 16일 재단 이사장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조창희씨를 5대 대표이사에 임명했다. 취임식은 17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재단 소속기관장들과의 상견례 자리로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조창희 신임 대표이사는 앞서 1·2차에 걸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조 신임 대표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국장, 종무실장(1급), 남양주레저개발(주)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해 왔다. /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



양평 옥천 새마을협 무연고 묘 벌초

양평군 옥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남·여)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옥천공동묘지 무연고 묘 제초작업을 실시했다. 명절이 지나도 후손들이 없는 탓에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잡초들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돼 있던 묘를 새마을 회원들이 나서서 주변을 정리한 것. 회원들은 제초작업을 통해 등산객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깔끔한 경관을 선사하고 이름없는 묘지주인의 넋에 대한 명복을 빌기도 했다. 이병모 옥천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지난해보다 좀 늦은 제초였지만 깨끗이 주변경관을 정리하니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양평=김청우 기자 kow@incheonilbo.com



광주소방서 산악사고 구조훈련

광주소방서는 16일 중부면 산성리에 위치한 남한산성에서 문화재 관리팀 직원 50명, 도립공원 관리팀 직원 20명이 모인 가운데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및 구조훈련은 매년 가을철이면 등산객이 급증하고 산불 등 산악사고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홍보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한산성 관계자에게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구조대원과 함께한 현지적응 합동 구조훈련, 소방차 길타주기 및 산불예방 캠페인 등 산악사고와 관련해 민·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광주=정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안산 전국외국인근로자 배구대회

안산시는 최근 올림픽기념관체육관에서 ‘2014 전국 외국인근로자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제종길 안산시장, 정용상 경기도배구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2개팀 500여명의 외국인 배구 동호인들이 참여해 마음껏 기량을 펼쳤다. 대회 결과 안산 A팀이 우승, 대구 A팀이 준우승, 광주 A팀과 구미 A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이천 포커스 한국전력 인천본부

“AG 45억 축제 ... 구석구석 윤기 내야죠”

차이나타운 등 관광지 12곳 쓰레기 수거 ... 복지단체에 입장권 전달도

한전 인천지역본부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스포츠 향유권 확대와 '2014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건강한 호흡을 높이고 있다.

한전 인천본부는 지난 12일, 2014인천 아시안게임을 맞아 인천지역 주요 관광지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날 진행된 봉사활동에서는 한전 인천본부 직원 100여명이 참석,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과 중구 차이나타운, 강화 고인돌광장 등 인천지역 유명 관광지 12곳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지난 15일에는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에 직원들의 성금모금으로 마련한 2500만원 상당의 아시안게임 경기 관람권을 전달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스포츠 향유권 확대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재원 한전 인천지역 본부장은 한전 인천지역본부를 방문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조류우산 어린이재단', '인천 외국인

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단체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 본부장은 “이번 관람권 지원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조금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사회에 한줄기 빛과 이웃에 사랑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인의 대축제인 이번 아시아게임에 선수, 임원등 2만여명이 참가하고, 수많은 관광객이 인천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은 이번 국제대회가 끝날 때까지 깨끗한 인천 만들기예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 인천지역본부는 오는 30일에도 ‘아시아게임 경기장’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 인천을 찾는 해외 언론 관계자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창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새얼굴

“화합·녹색경영 구현 최선”



이상의 인천환경공단 4대 이사장

인천환경공단 4대 이사장에 이상의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이 16일 취임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서울 경동고교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2년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환경복지국장을 역임했다.

이 이사장은 “재임기간 동안 조직화합을 통해 효율적인 공단사업 운영으로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친환경 녹색경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하나님의교회 세월호 현장 봉사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전남 진도의 진도실내체육관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간 봉사단체가 있다. 현장을 지키는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사고대책관계 공무원과 실종자 가족들의 세 끼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요청에 의해 8월13일 무료급식 봉사를 재개한 이래 30일에 운영이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달 19일까지 연장했다. 교회 측은 이용자들과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실종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듣고 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김진국 기자 freebird@incheonilbo.com



JST일자리본부 단기 직업 2차 교육

인천경제통상진흥원 JST일자리지원본부는 26일까지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단기 직업 2차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내 3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인사·경리·무역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인사사무원 양성과정은 현재 노무사로 강사진이 구성돼 평가, 보상, 임금, 휴가 등에 대한 법률과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리사무원은 중소기업 실무에 필요한 4대 보험 계산, 연발정산, 사원등록 등이 중심이다.

무역사무원은 수출입에 필요한 통관 절차, FTA 적용, 제품별 관세 및 처벌 제도와 함께 현재 관세사의 현장감 있는 강의를 받을 수 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자유총연맹 인천지부 전쟁음식 시식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회장 김윤태)는 15일 제6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맞아 월미도 전승행사장에서 6·25전쟁 당시 음식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식회는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전쟁 당시의 음식을 체험함으로써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건전한 안보관을 함양하여 자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전용사를 비롯하여 일반시민들을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쟁당시 음식시식회는 주먹밥, 보리개떡, 죽버무리 등 어려웠던 시절에 먹었던 음식들을 먹어 보면서 전쟁당시의 상황을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김창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동구 AG·APG 보고회 개최

동구는 지난 15일 구청 상황실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박진표 부구청장, 부서장 15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로변 청소와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손님맞이 준비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이흥수 구청장은 “인천과 동구의 역량을 45억 아시아인에게 각인시킬 기회”라며 “성공 개최를 위해 전 공직자가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기간 동구 송림체육관에서는 남자부 16개국, 여자부 9개국이 참가하는 배구 경기가 펼쳐진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안전보건공단 중부본부 농촌 일손돕기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박동기 본부장)는 최근 안산 대부도포도 작목반에서 포도수확 일손돕기를 위한 1:1 촌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중부지역본부는 안산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농번기를 맞아 대부도 지역 특산품인 포도 수확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양촌중 글로벌 존 토요학교 개강

인천 계양구 양촌중학교(교장 장석현)는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 글로벌 존 토요학교 운영에 따른 거점학교 프로그램인 ‘Dream English’, ‘기초영어’, ‘Creative Drama Musical’ 강좌를 개설했다. 1기 글로벌 존 토요학교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하듯 계양구내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여 지난 13일 2기 글로벌 존 토요학교 개강식이 개최됐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결혼합니다

△김달귀·장순자씨의 장남 창현군과 서상범(인천대학교 대학원 교학행정팀장)·황기순씨의 장녀 효림양=20일(토) 오후 2시, 인천 그랜드호텔 웨딩의전당, 032-885-7111

△김무열·노병숙(미카엘라)씨의 장남 옹후(알베르토)군과 정대유(야고보·인천종합건설본부장)·권미조(소피아)의 장녀 정문(루크레시아)양=10월4일(토) 오전 11시30분, 고잔성당 2층 대성전, 032-442-9174



제41회 웅진군민의 날 기념식

웅진군은 지난 15일 군청 효심관에서 ‘제41회 웅진군민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주민, 출향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군은 5개 분야에 대해 군민상을 수여했다. 문화관광 장덕찬, 사회봉사 박영자, 효행 김진옥, 지역개발 황태성, 특별부문에 김준환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운길 군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여객선 수화물 제한과 잦은 결항으로 군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위기를 헤쳐가고, ‘명품 웅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앞치마 두른 아빠 ... 엄마 못지 않은 ‘손맛’

남구 드림스타트 부자 요리 교실

남구 드림스타트는 최근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부자 요리 교실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손쉽게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찌개류와 밑반찬 등 단품 요리 중심의 생활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드림스타트는 이번 교육이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요리 교실은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요리를 만들면서 소중한 추억을 쌓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부자 요리 교실은 오는 10월27일까



지 8차례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남부소방서 AG 안전시스템 점검

남부소방서(서장 정병권)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16일 오전 남구 문화박태환수영장 현장안전통제실을 찾아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최종 점검했다.

소방서는 이날 박태환수영장 내외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

으로 가정해 신속한 조치 및 복구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설치되는 현장안전 통제실의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각 기관별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우고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 서장은 “아시아경기대회가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라 될 수 있도록 재난·재해사고 예방 활동과 훈련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모든 자동차 OK 인천 최대의 중고차 판매단지

간석 자동차 매매단지

35개 상주 입주 · 자동차 인천 최대 보유

☎(032)872-0446

신랑작 입테이로 사물계 대어남 수림공원 원당회

수림공원 웨딩홀 · 뷔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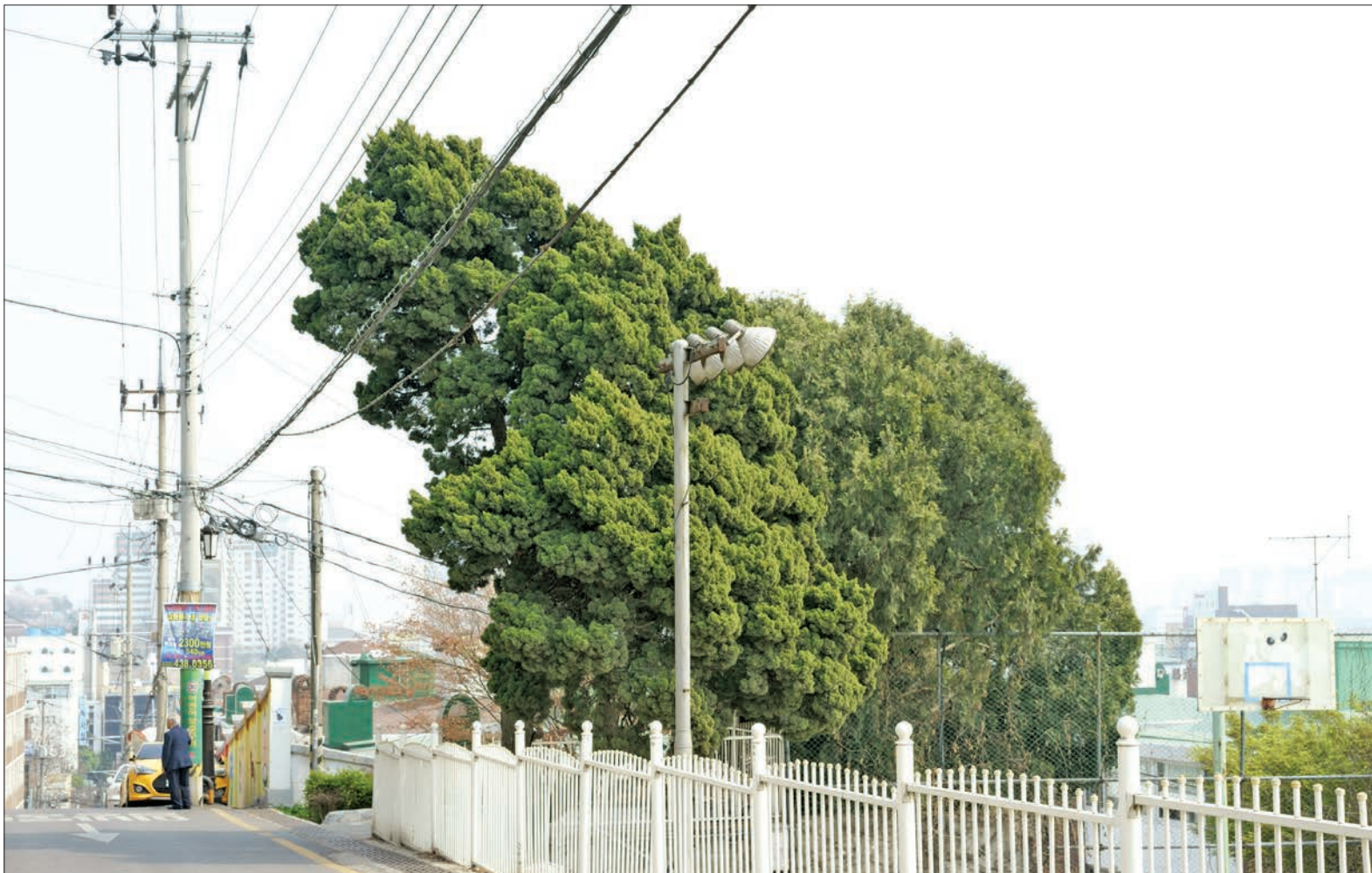
예약문의 ☎032)434-3000 (결혼식, 돌, 백일, 회갑, 각종모임)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

환경관련엔지니어링/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산업환경시설 설계 · 시공 및 관리

세계일류의 수질환경 전문회사가 되었습니다.

☎ (032)566-0010 / http://www.bninature.com



컴팩스마트시티에서는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2014 인천아시아게임 개최를 맞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풍경에 살다, 인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작품은 사진작가 이영옥작 '이상한 도시 산책'.

인천문화재단 21·28일 '인천:바다의 연꽃' 국악 판타지 콘서트

노래를 사랑한 심청의 '孝' 이야기

고전문학 재구성...해금·창작무용 '장르 결합' 볼거리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송도 트라이볼이 오는 21일과 28일 특별 기획공연으로 국악 판타지 콘서트 '인천:바다의 연꽃 (Incheon : Lotus of Sea)'을 진행한다.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와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특별 기획공연은 한국 3대 고전문학인 '심청전'의 내용을 재구성, 노래를 사랑하는 소녀 심청이 인천 앞바다에 빠지고 난 후 바다 속 용궁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로 중심으로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효과 영상과 무대 기술로 구성된 관객들에게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주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열정적인 전통 모듬북 공연과 서정적인 해금과 피아노의 이중주, 아름다운 전통 창작무용 등 전통예술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결합되었다.

주요 부분들만을 모아 공연하는 갈라(Gala)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자칫 지루해 질 수 있는 심청전의 줄거리를 8장으로 간략히 줄여 관객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낸다.

이번 공연에는 세종문화회관 국악전문위원, 국립극장 KBS 1FM 자문위원, 전주 소리축제 및 대



사습놀이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악평론가 겸 연출가 윤중강이 예술감독을 맡아 공연의 스토리 각색과 연출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출연진들로 한국 국악계를 이끌 젊은 전통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인천 출신의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 지역형 문화 브랜드 콘텐츠로 기획됐다.

공연 입장료는 무료이며 공연예약은 인터넷 누리집 (<http://www.tribowl.kr>)에서 가능하다. 032-760-1014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흔적 포착

오늘~11월30일 컴팩스마트시티 '풍경에 살다, 인천' 기획전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 위치하고 있는 컴팩스마트시티에서는 17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기획전시 '풍경에 살다, 인천'을 개최한다.

2014 인천아시아게임 개최를 맞아 인천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인천이라는 풍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천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4인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풍경(風景)은 감상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나 세상의 모습을 일컫는다. 전시는 풍경의 범위를 인

전으로 한정하고 그 인천의 풍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인천은 선사시대부터 천혜의 식량보고인 바다와 갯벌을 터전으로 성장한 도시로 '바다의 삶'은 도시 인천의 근원이다. 작가 류재형은 인천의 대표 특산물인 '꽃게'를 주제로 한 작업을 선보이고, 작가 김연용은 자신의 고향이며 삶의 터전인 선재도 갯벌 위의 삶을 보여준다.

1883년 인천은 강요된 개항으로 근대도시의 모습을 만들어갔고 1899년 최초의 철도 경인철

도가 수탈을 목적으로 개통됐다. 작가 이영옥은 특히 원도심에 묻어있는 시간, 기억의 흔적을 찾아 기록했고, 작가 노기훈은 1호선을 따라 걸으며 역주변의 사소한 일상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전시는 도시의 진정한 주체인 사람들의 삶, 그 흔적들을 카메라로 가감 없이 재현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인천의 속살을 보여준다.

인천풍경 속 삶의 모습을 마치 풍경(風景 landscape) 속의 풍경(風景 wind chime)처럼, 바람에 흔들려 쓸쓸하고도 맑은 소리를 내는 풍경(風景 wind chime)처럼 보여주고 있다.

/김진국 기자 freebird@incheonilbo.com

24일~내달 4일 인천AG 국제스포츠 우표 전시회

45억 아시아인들의 대제전 '인천아시아게임' 개최를 3일 앞두고 성공을 기원하는 전시회가 개막했다.

<사진>

2014 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는 신세계갤러리 5층 인천점에서 '2014 인천AG 국제스포츠 우표 전시회' 개막식을 갖고 전시회에 들어갔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번 우표전시회엔 스포츠 우표, 올림픽 엽서, 포스터 등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 기념자료가 전시된다. 모두 30여 작품 150여 장의 세계 각국의 우표를 만날 수 있다.

이번 국제스포츠우표 전시회는 신세계인천점에 이어 인천개항박물관(9월24일~28일)을 거쳐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9월 30일~10월 4일)으로 이어진다.

김영수 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은 "인천아시아게임은 몇 나라만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45개국이 화합하고 배려하는 축제"라며 "우표는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아이콘으로 이번 전시회는 경기가 열리기에 앞서 각 나라의 문화를 돌아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지음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우표는 그 나라 문화의 척도"라며 "인천아시아게임이 스포츠 제전이지만 이 같은 문화적 뒷받침이 없었다면 완벽한 제전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석 인천아시아게임조직위 대외협력위원장은 "인천아시아게임의 유지와 준비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아시아게임 기념 우표발행을 협의하고 이어서 스포츠 우표 전시회 준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우표 수집가로서 큰 행운"이라고 밝혔다. 032-430-1169

/김진국 기자 freebird@incheonilbo.com

“학생들이 만든 클레이 작품 만나요”

23~28일 한중문화회관 500여점 선봬

제4회 인천지역 방과후 학교 클레이 전시회가 오는 23~28일 인천한중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에벤에셀 공예작가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인천지역 25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시간, 클레이를 이용해 만든 작품을 만나는 자리다.

전시에선 인천지역 25개 초등학교에서 에벤에셀 공예작가협회 소속 지도강사들과 올 상반기 동안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을 만날 수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시계, 전통, 시간표, 사계절, 캐릭터 등 재밌는 클레이 작품 500여점과 지도강사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클레이 공예는 기본도형을 활용해 입체, 반입체물을 만들며 소근육 발달과 조형감각, 창의력, 이큐(EQ) 능력 향상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또 색 혼합과 명도 조절이 손쉬워 자연스럽게 색 혼합, 대비, 조화를 배울 수 있고 알갱이가 손에 자극을 주어 두뇌 개발에도 도움을 주며 심미적 안정감을 주고 집중력에도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13회 경마공원 그림그리기대회

인천일보가 주최하는 2014 경마공원 그림그리기대회는 유치부·초등부에게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연친화적 초현대식 시설에서 건전한 경마문화의 인식과 자연사랑의 마음을 고취시키며 예능적 기량향상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2014년 9월 24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렛츠런파크서울(서울경마공원)
대상: 인천, 경기도 소재 유치부·초등부
참가예상인원: 10,000명
신청접수 및 문의: 경기도미술교육자협의회 Tel. 070-7168-8899

주최: 인천일보

주관: 인천일보 · 경기도미술교육자협의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제4회 경기도 · 경기도의회 · 경기도교육청 · 과천시 · 과천시의회 · KFA 한국마사회 · 월평생 교육원



지역예술인 축제 가을밤 물들인다



지휘자 이종관

20일 인천 연수구 문화공원 '제물포예술제' 음악·미술·영화 등 9개 문예협회 합동무대

인천시민들과 오랜 세월 함께해온 '제물포예술제'가 32번째 순서를 맞아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인천 연수구 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제물포예술제'는 인천의 장르별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예술제로 인천예총과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작가, 연예예술인, 음악,

영화인 등 9개 협회가 함께 만들어내는 대규모 축제다. 이번 행사는 인천예총과 인천음악협회(인천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인천연예예술인협회, 인천무용협회, 인천국악협회 합동공연으로, 1부 '랩소디빅밴드&필그림 어울림콘서트'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어 진행되는 2부에서는 인천예총과 뉴필하

모닉오케스트라와 남구, 남동구, 연수구 구립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연주가 이어져 깊어지는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김재열 인천예총 회장은 "인천지역 순수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예술제를 펼쳐, 지역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예술향유 기회의 폭을 넓히려 한다"며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예술적 욕구 충족을 위해 폭 넓고 다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역 대표 종합예술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프로그램은 인천예총 인터넷 누리집(www.art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인천문예회관 AG입장권 소지자 할인혜택

인천종합문예회관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기념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또는 종목별 입장권을 소지한 관객에게 예술회관의 기획공연을 20% 할인한다. 향긋한 커피 한 잔과 공연을 즐기는 '커피콘서트'와 실력 있는 밴드의 음악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밴드데이' 등 이번 이벤트에 해당하는 공연은 총 10개로 올해 초연인 연극 '투명 인간'과 각종 연극제를 휩쓴 '알리바이 연대기', '칼로막베스' 등 엄선된 연극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펼쳐지는 클래식 스타인 스테판 피 재키브와 지용의 리사이틀도 이

번 할인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회기간인 오는 23일에 열리는 세계적인 지휘자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치와 스위스이탈리안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는 인천AG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특히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AG 입장권 소지자의 20%할인은 1인 1매로 제한되며, 예매 시 해당 권종을 선택 후 공연당 일 AG입장권을 지참해야 한다. 현장에서도 AG 입장권을 제시하면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032-420-2731 ~9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녹청자박물관 희귀도자 전시...11월16일까지

인천서구 녹청자박물관(관장 김기봉)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기념해 '우리 찻그릇에 담긴 餘裕' 기획전을 개최한다. 17일~11월16일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차를 담아냈던 다양한 청자들을 제작 발전시켜왔던 고려시대의 찻그릇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못했던 녹청자박물관의 소장품들은 물론 가천박물관, 송암미술관의 소장유물이 다수 공개되어 인천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도자유물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물과 함께 전통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인천 도예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

다. 과거와 현재의 찻그릇들을 비교하며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현대도에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시가 구성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기획전에 공개된 전시유물은 고려시대 차를 담는 첫 그릇이었던 헛무리굽 완을 비롯해 중국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고려화된 아름다운 형태의 다양한 찻잔들이다. 고려청자 전성기에 고려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상감청자까지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된 찻그릇을 통해 고려청자의 변천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어 전통 도자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32-560-2932 /문학기자 moonhi@incheonilbo.com

9월 17일(수)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성표		문예 OBS (032)670-5130 KBS (02)781-1800 MBC (02)780-0015 SBS (02)12113-3190 EBS (02)526-2000			
OBS	KBS1	KBS2	MBC	SBS	EBS
06:00 생방송 OBS 07:25 ㉠ ㉠ 독특한 연애 뉴스 08:15 건강요리대백과 45 사람, 산 09:45 OBS 뉴스 945 10:00 ㉠ ㉠ 나는 전설이다 II 11:00 ㉠ Music & Movie 30 ㉠ TV 주치의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 ㉠ TV 동화 빨간 지전거 55 ㉠ 튜튼생활채널 11:00 KBS 네트워크특선 55 ㉠ 시청자칼럼	06:00 ㉠ 튜튼생활채널 05 ㉠ 갈아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07:00 코모닝 대한민국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 TV소셜 일면단심 만들레 40 ㉠ 여유만만 10:50 지구촌 뉴스 11:15 사랑의 가족 45 ㉠ 아이언맨	06:00 뉴스투데이 07:50 ㉠ 모두 다 김치 08:30 ㉠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45 ㉠ 기분 좋은 날 11:00 ㉠ 마마	06:00 모닝와이드 08:30 ㉠ 청담동 스캔들 09:10 ㉠ 좋은아침 10:30 SBS 뉴스 11:00 SBS 생활경제	07:00 ㉠ 시계마을 티키토! 15 ㉠ ㉠ 곤 30 ㉠ 적과 땅 45 ㉠ 로보가 폴리 08:00 댕댕땡 유치원 20 ㉠ 뽀롱뽀롱 뽀로로 35 방귀대장 뽀롱이 50 Why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5 ㉠ 바오밥섬의 파오파오파 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5 따개비 루 40 육아를 부탁해! 10:10 ㉠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4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 세계 테마 기행 12:00 EBS 정보 뉴스 10 EBS 초대석 1:05 지식채널e 10 부모광장 40 내 이름은 평기 50 뽀롱뽀롱 올리 2:00 시계마을 티키토! 15 치료와 친구들 30 미술탐험대 45 미앤미로봇 3:00 꼬마 철학자 휴고 05 ㉠ 어린 왕자 30 정글북 45 모피와 친구들 4:00 ㉠ 댕댕땡 유치원 20 버블버블 마린
12:05 ㉠ 여영차 바다야 1:05 ㉠ 스토리 View 2:05 인생열전 3:05 버리의 시간여행 55 송승헌 구 파파를라 4:45 OBS 뉴스 & 이슈 5:35 TV 주치의	12:00 KBS 뉴스 12 55 바르셀라 고운말 1:00 ㉠ 우리말 겨우기 55 ㉠ 나는 국가대표다 2:10 ㉠ 한국 한국인 3:00 KBS 뉴스 10 ㉠ 시사기획 창 4:00 시사진단 55 ㉠ 튜튼생활채널 5: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세상은 넓다	2:00 KBS 뉴스타임 10 ㉠ ㉠ 퀴즈쇼 사총사 3:00 ㉠ 후토스 잃어버린 숲 25 ㉠ 유후와 친구들 55 TV 유치원 콩다콩 4:25 ㉠ 마법 천자문 55 ㉠ ㉠ 위기탈출 넘버원	12:00 MBC 정오뉴스 20 ㉠ ㉠ 내 생애 봄날 2:35 ㉠ 리얼스토리 논 3:00 MBC 경제뉴스 10 응개 소나타 40 헬로킴지 자연이야기 4:30 독?독! 키즈스쿨 5:00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30 ㉠ 달콤한 나의 도시 1:30 ㉠ 생활의 달인 스페셜 2:00 SBS 뉴스 10 ㉠ 문화가중계 3:10 이슈 인사이트 4:00 ㉠ 파이스토리2 30 ㉠ 꾸러기 탐구생활 5:00 뉴스 퍼레이드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00 다큐월드 글로벌 비전 55 오투차차 7시 7:45 OBS 뉴스 M 8:25 오늘의 월드 뉴스 55 ㉠ 독특한 연애 뉴스 9:45 ㉠ 리얼 탐험대 10:40 OBS 경인 뉴스라인 11:05 ㉠ 나는 전설이다 II 12:05 ㉠ 나는 전설이다 01:05 ㉠ ㉠ Music & Movie	6: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7:00 KBS 뉴스 7 30 엄마의 탄생 8:25 ㉠ 고양이는 있다 9:00 KBS 뉴스 9 10:00 생로병사의 비밀 50 숲 터 11: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6: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7:50 여기는 인천 남자축구 <대한민국 : 사우디> 10:00 ㉠ 아이언맨 11:10 ㉠ 가족의 품격 12:30 AG특집 나는 국가대표다 45 세상의 모든 다큐 01:35 ㉠ 한국인의 발상	6:20 ㉠ 불만제로 UP 7:15 ㉠ 소원을 말해봐 55 뉴스데스크 8:55 ㉠ 엄마의 정원 9:30 ㉠ 리얼스토리 논 10:00 ㉠ 내 생애 봄날 11:15 ㉠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2:35 MBC 뉴스 24 55 함께 사는 세상 나누면 행복 02:0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6:05 생방송 투데이 7:20 ㉠ 사랑만 할래 8:00 SBS 8 뉴스 55 ㉠ 한가한 TV연예 10:00 ㉠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11:15 ㉠ 달콤한 나의 도시 12:35 나이트라인 01:05 컬처클럽 02:05 ㉠ 자기가 ~ 백년손님	

오늘의 운세		9월 17일 (음력 8월 24일)	심재호 (032)545-4794
子	48년 건강을 위해 취미생활은 필수이다 60년 의견충돌로 심기는 불편해도 일은 진행된다 72년 상사나 동료의 칭찬에 힘이 생기는 날이다 84년 새로운 일은 시기상조이니 미루라	丑	49년 대세를 따라 순응해야 할 때이다 61년 국기하는 가운데 운명의 길 스스로 터득 73년 돈이 생기니 고인이 사라지게 된다 85년 경술함이 일의 좌초를 만들게 되니 주의하라
寅	50년 믿는 사람을 주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라 62년 어려웠던 일에 희망이 보이니 기쁘다 74년 급격한 금전 거래는 하지 말라 86년 호연정당은 내일은 후회하게 되니 주의하라	卯	51년 지나치게 앞서니 충동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63년 사치스런 마음을 버리고 근면 하라 75년 좋은 습관은 내 운명을 바꾸게 된다 87년 생각대로 전개되어 순조로운 날이다
辰	52년 나도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다 64년 보석도 뒤야야 광재가 나는 것이다 76년 멀리 내다보는 지혜를 구하라 88년 가족 불화가 예상되니 중재 할 때이다	巳	41년 내가 웃으면 가족도 웃는다 53년 부부라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65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이다 77년 고인전사 말고 뒷사람에게 저문을 구하라
午	42년 한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기다려주라 54년 지난 일에 미련을 두는 것은 이롭지 않다 66년 원형은 가벼운 마음으로 가라 78년 귀가길에 음주운전 주의하라	未	43년 독선은 친구와 멀어지게 되니 주의하라 55년 약한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 67년 쇠는 달굴수록 강해지는 법이다 79년 요행수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온다
申	44년 과도한 욕심은 경계 할 때이다 56년 가까운 사람과 구설수 예상되니 주의하라 68년 자존심보다 겸허하게 행동 할 때이다 80년 이유 없는 감정의 변화에 자중하라	酉	45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면 받아들여라 57년 마음을 열어 대화로 타협해야 한다 69년 도난이나 실물수가 예상되니 주의하라 81년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생각과 마음에서 온다
戌	46년 공동의 일에 결실하기는 날이니 기쁘다 58년 마음이 얼굴에 상을 만드니 표정 관리하라 70년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를 하라 82년 내가 이겨도 승리자는 아닌 것이다	亥	47년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고 행동하라 59년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니 기다려라 71년 계획한 일은 진행이 순조로우니 기쁘다 83년 중요한 결정은 부모님과 상의하고 실행하라

★급 매★
공장부지

소재지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면적 대지 4,824.9㎡
연면적 2,371.35㎡
동력 450kW
준공연도 2004년 12월
추천용도 전기, 전자정보분야
매물특징
· 취득세 전액감면
· 법인세 5년간 50%감면
· 인천지하철1호선 테크노파크역 5분 거리
· 주요 고속도로망 근접으로 교통편리
·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 근접
· 쾌적한 환경, 각종 개발 호재

010-6729-3170
소유주 직접거래

매 스크린골프장 매
(신규창업 중합컨설팅 해 드립니다.)

① 남 구	② 서 구
스크린골프장 및 건물매매 (건물전체가 스크린골프장임) 월매출 : 6,000만원. 매매가 : 18억7천	골프장 및 상가매매 전용면적 : 270㎡ 매매가 : 7억
③ 남 동 구	
전용면적:330㎡ 보:2,000, 월:170 시+권 : 5천	전용면적:450㎡ 보:2,000, 월:200 시+권 : 9천
④ 연 수 구	
전용면적:330㎡ 보:3,000, 월:120 시+권 : 4천	전용면적:330㎡ 보:5,000, 월:220 시+권 : 6천
⑤ 계 양 구	⑦ 서 구
전용면적:500㎡ 보:7,000, 월:250 시+권 : 9천	전용면적:560㎡ 보:1억, 월:400 시+권 : 1억5천
⑥ 부 평 구	⑧ 독 점
전용면적:500㎡ 보:5,000, 월:270 시+권 : 4천	전용면적:380㎡ 보:2,500, 월:170 시+권 : 1억8천
	전용면적:500㎡ 보:2,000, 월:230 시+권 : 1억2천

☎ 032-574-8898

공장금매

소재지 : 인천 서구 석남동
대 지 : 1,459㎡
건 물 : 상가동 1층 288㎡
2층 288㎡
공장동 1층 709.5㎡
현 임대수익율 5%

조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 표 : 조 은 영

032-588-2949
010-9409-8705

인천 소형공장 매매 입차

● 소재지 : 가좌·C주변
- 인천지하철 2호선 역세권(개통예정)

● 면적

1층 264㎡(80평) 1층 331㎡(100평)
2층 264㎡(80평) 2층 331㎡(100평)
계 528㎡(160평) 계 661㎡(200평)

현금 8,000만원으로
내 공장 마련 입차도 가능함

● 기반시설, 혜택
- 등·취득세 50%면제
-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37.5%감면
- 화물엘리베이터(2) : 설치되어있음
- 주차장 : 216대 주차시설 완비
- 즉시 입주, 동력 :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음

분양문의 032) 772-1680
032) 861-2900

짧아진 코스·전술 다양화 더 짜릿해진 경정

기복없는 어선규 경정 3관왕 순항

2주회 경주 방식 본격 도입

상황따른 주법 구사력 요구

출발 진입고정식 변화 예고

경정에 2주회 경주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출발도 코스경합방식에서 진입고정방식으로 변경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3주회 경주와 함께 1일 5경주 범위 내에

서 2주회 경주를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주회 경주는 2002년 경정 출범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향후 경주방식 변화의 1단계 조치다.

기존 3주회 경주와 함께 2주회 경주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선수들의 전법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3주회(1800m)에 익숙한 선수들로서는 이보다 짧은 2주회(1200m) 경주가 시행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전법을 구사해야하기 때문에 전법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8월 2주회 시범경주에 참여했던 선수들은 경주 후 소감에서 2주회 경주가 본격 도입된다면 전법의 다양화는 필연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따라서 2주회 경주는 단순히 거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선수나 경정 팬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2주회 도입은 경주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와 함께 24일부터는 출발방식도 기존 코스경합방식에서 진입고정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현행 코스경합 출발에 따른 경정 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처음부터 매정된 자신의 코스에 진입해 경주를 펼치게 된다.

여기에 경마나 자동차 경주처럼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온라인스타트 방식을 제대로 선보이기 위한 수상계류장치 설치도 검토된다. 지난 9월

초 시범 경주 결과 지금 상태의 경정장에서 온라인스타트 방식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경정은 모터보트가 질주하는 상태에서 출발선을 통과하는 플라잉스타트로 경주가 성립된다.

경정 관계자는 “2주회 경주, 출발방식 변경은 경주방식의 다양화로 팬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지속적인 경주품질 개선을 통해 경정이 매력있는 수상레저스포츠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상경주 등 박이벤트시 시행했던 화요일경정은 선수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9월부터는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어선규(4기·36·사진)가 시즌 3관왕에 도전한다.

어선규는 현재 하반기 랭킹 1위는 물론 다승(25승)과 상금(8100만원)에서도 맨 위에 이름을 올리며 모든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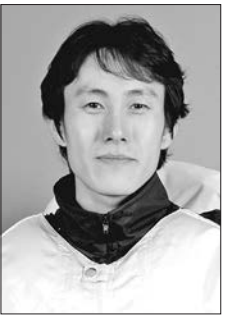
물론 시즌이 끝나려면 3개월 정도가 남아있지만 한 선수가 모든 부문에서 수위를 점하기는 흔치 않은 일이다. 특히 올 시즌 대상경주 등 박매치에서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의 전부분 석권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비결은 기복없는 성적이다. 그는 올 시즌 61회 출전해 1착 25회, 2착 14회, 3착 10회 등 3연대율이 무려 80%에 이른다. 열 번 중 여덟 번은 3위 내에 들었다는 뜻이다.

어선규는 최근 출전한 여섯 경주에서도 상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3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다음주 시즌 다섯 번째 대상경주 우승을 노린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금빛 조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16일 인천의 한 훈련장에서 우리나라 여자 양궁팀이 훈련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다소미, 이특영, 장혜진, 주현정이 신중하게 조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산경찰청 다문화 어린이축구단 창단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은 지난 15일 안산 원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어린이축구단(명칭 레인보우키즈 축구단) 창단식’을 가졌다.

어린이축구단 감독으로는 임완선 전 대전시티즌 코치가 임명됐으며 선수단은 중국, 우즈베크, 필리핀, 베트남 등 각국의 어린이들로 구성됐다.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의 후원사인 자이크로가 선수 유니폼을 후원하고 현재 사우디에 있는 알힐랄에서 뛰고 있는 곽태휘가 축구화를 후원했다.

다문화 어린이 축구단인 레인보우키즈 축구단은 현재 축구에 관심있는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들을 모집중에 있다.

031-480-2002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쉐보레 레이싱팀 3연속 ‘서킷의 제왕’ 우뚝

슈퍼레이스 6라운드 이재우 1위

안재모 3위…내달 11일 7R 돌입

‘쉐보레(Chevrolet) 레이싱팀’이 지난 13일 강원도 태백 레이싱 파크에서 열린 “2014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 결승전에서 우승하며, 4·5라운드에 이어 3연승을 기록

했다.

크루즈 레이싱카로 GT 클래스(배기량 5000cc 이하)에 출전한 이재우 감독 겸 선수는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뽐내며, ‘폴 투 파니시(Pole to Finish, 예선 1위 및 결승 1위)’로 경기를 마치며 우승컵을 안았다. 안재모도 3위를 기록해 정상급 기량을 과시했다. 야간 경기로 진행된 6라운드 GT클래스에는 총 11대의 출전 차량이 참가했다. 선두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올해

<사진>

시즌 우승컵의 향배를 점칠 수 있었던 경기였던 만큼, 선수들의 긴장감과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편, 쉐보레 크루즈는 지난 시즌 대비 300cc 다운사이즈 된 새 1.7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최대 300마력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014 슈퍼레이스 7라운드 경기는 오는 10월 11일, 전라남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된다.

/인천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



부동산 사고 팔 때 전문자격사에게

부동산 매물검색은 한국부동산거래소에서

중개업소 방문하실 때 협회 공제마크를 확인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포털사이트 “한국부동산거래소”에 방문하면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ren.or.kr NAVER 한국부동산거래소 검색 D2M 한국부동산거래소

공제가입, 개설등록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로 문의하세요.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인천 남구 주안로 86, 601외주안동, 우신주안빌딩 TEL:032)875-6321, FAX:032)875-8731

검색창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를 쳐보세요!



☆ 공장·창고, 내대지 상가임대매매접수받습니다 ☆

B2B공인중개사사무소

비투비공인중개사사무소 전속물건 공개매각

비투비와 함께하는 고객님의 물건을 공개 매각 합니다.

1. 인천 중구 항동7가 93-10번지 7050.6㎡(구2,133평) 현 철강회사
2. 인천 중구 신흥동3가 50-4,5번지 전체 23,730㎡(구7,178평) 1,322.3㎡(구400평)이상 분할매각
3. 인천 중구 항동7가 65-45번지 198.2㎡(구60평)
4. 인천 서구 오류동 810번지 외 3필지 5,584㎡(구1,690평)
5. 인천 강화군 불은면 신현리 186-3번지 4,295㎡(구1,299평) 공장허가, 토목공사완료.
6. 경기도 화성시 화리현리554, 265-2,6번지 계획관리 4,492㎡(구1,358평) 공장, 창고로 가능
7. 인천 연수구 동춘동 810-11번지 근린상업용지 1,858㎡(구562평)
8.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227번지 4,959㎡(구1,500평)
9.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5번지 상가건물
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22-3번지 10,962㎡(구3,316평)공장허가, 토목공사완료.

이외 기타 다수의 물건보유 매매,임대 매물접수 환영.

1. 인천 서구 심곡동 대로변 13,980㎡(구4,229평) 추천
2. 인천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해안도로부지 평수다양 추천
3. 인천 중구 항동7가 63,324.4㎡ (19,155.6평) 추천

문의전화 : 032-859-894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05-4번지 대표공인중개사 김중윤



AG 3연패 **금물살** 가른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박태환이 16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열한 승부·따뜻한 교감 韓日 축구소녀

U-14 대표팀 방일 친선경기

총 3경기 1승 1무 1패 호각세

문화탐방·합동훈련 등 교류도

가정여중 박예빈·문진서 동행

한·일 청소년 간의 아름다운 승부가 펼쳐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오사카 J그린사카이에서 일본축구협회와 한일교류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전에는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U-14 여자대표팀이 김정찬 감독의 지도하에 아래 일본을 방문해 멋진 승부를 펼쳤다.

한국 대표팀은 일본 U-14 여자대표팀과 2차례, JFA 아카데미 사카이팀과 1차례 등 총 3번의 친선경기를 치렀다.

지난 15일 열린 일본 대표팀과의 2차전 경기에서 한국은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앞서 12일 열린 1차전에서는 0대 1로 패한 바 있다.

하지만 14일 열린 JFA 아카데미 사카이팀과의 경기에서는 1대 0으로 승리를 따냈다. 최종 1승 1무 1패, 일본 U-14 여자대표팀에게는 아쉽게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U-14 여자 대표팀에는 인천에 유일한 여자중학교 축구단인 인천가정여중 박예빈, 문진서가 포함됐다.

한편, 한·일교류전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우수 청소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가 후원하고 있다.

한·일교류전은 단순한 축구경기를 넘어 축구를 통한 양국 협회와 청소년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양국 대표팀은 친선경기 외에도 합동훈련과 문화탐방, 지도자 워크숍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애를 나누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근영 기자 kky89@incheonilbo.com

인천 신한은행 이민우 코치 영입



여자농구 인천 신한은행이 이민우(43) 전 프로농구 창원 LG 스카우트를 코치로 선임했다.

신한은행은 김지윤 코치가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남에 따라 공석이 된 코치 자리에 이민우 스카우트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클리블랜드고와 연세대를 거친 이 코치는 실업 산업은행, 프로 나래(현 동부)에서 센터로 뛰었다. 은퇴 후 인천 전자랜드 코치를 지내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센터 출신인 이민우 신입코치가 기존의 가드 출신인 전형수 코치와 시너지 효과를 내 정인교 감독을 도와 팀의 변화와 도전을 이끌 것”이라고 이 코치를 선임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근영 기자 kky89@incheonilbo.com



‘박태환 라이벌’ **쑤양** 입국

쑤양(중국·오른쪽)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왕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한국 청소년 핸드볼 亞선수권 제패

부천공고 강석주 결승전 10골 폭발

강석주(부천공고)가 제6회 아시아청소년 핸드볼선수권대회 우승을 견인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이 우승한 것은 9년만이다.

박종하(전북제일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5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카타르와의 결승전에서 26대 25로 짜릿한 한점차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5년 1회 대회 우승 이후 9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한국은 2010년 4회 대회 결승과 2012년 5회 대회 준결승에서 연달아 카타르에 져 우승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 결승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강석주(부천공고)가 혼자 10골을 터뜨리며 맹

활약했고 박동광(대성고)과 김지훈(부천공고)도 7골과 5골을 기록, 득점에 가세했다.

골키퍼 박재용(대성고)은 45.5%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5대 23으로 앞선 경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강석주가 한 골을 추가하며 3골 차로 달아나 승기를 잡았다.

박 감독은 “4강에서 연장까지 치르는 바람에 체력 저하가 우려됐지만 선수들이 정신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자 청소년 대표팀은 17일 오전 귀국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北 여자축구 화끈한 골잔치

AG 첫 경기 베트남 5대 0 대파

페널티킥만 3차례 일방적 경기



지난해 7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자축구대표팀이 다시 한번 정상으로 가는 길의 물꼬를 텄다.

김광민 감독의 지도하에 아래 북측 AG 여자축구대표팀은 16일 남동아시아 드라키비경기장에서 베트남을 5대 0으로 대파했다.

이날 승리로 북측은 남자대표팀과 마찬가지로 16강전 진출이 유력하다. 북측은 남자팀과 같이 3개의 국가가 참전한 C조에 속해 있어 사실상 1승만 챙겨도 8강진출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다.

북측의 몰아치는 공격에 베트남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경기 전체에서 베트남은 단 3번의 슈팅밖에 시도하지 못했고, 무리한 수비로 페널티킥을 3번이나 내렸다.

북측은 체격적인 면에서도 크게 앞섰다. 북측 선수단에서 170cm를 넘는 선수는 7명, 베트남은 단 2명 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선발 출전한 선수는 단 한명에 불과했다.

첫 골은 주인공은 김윤미였다. 전반 5분 라온심의 패스를 받은 김윤미는 강력한 슈팅으로 골잔치의 포문을 열었다.

북측은 5분뒤 바로 헤딩으로 추가골을 넣으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이어 전반 21분 김은주의 골과 41분 리예경의



16일 인천 남동아시아드라키비경기장에서 열린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예선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경기에서 북측 김윤미(왼쪽 두번째)가 팀의 첫번째 골을 넣고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골로 골잔치를 벌인 북측은 후반 37분 정유리의 페널티킥을 마지막으로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북측 여자축구대표팀은 오는 20일 남동아시아드라키비경기장에서 홍콩과 조별리그 2차전을 갖는다.

/김근영 기자 kky89@incheonilbo.com

역대 최초 ‘소셜 아시안게임’ 기대하세요

11개 언어 SNS 운영 등 준비 완료

‘스마트 토치 릴레이’ 200만명 참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역대 아시아경기대회 최초로 소셜 아시안게임으로 치를 준비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셜미

디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에 나선 조직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11개 언어 SNS 채널을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보급률 확대 등에 따른 모바일 디바이스 활용도가 높아지고 SNS 접속시간이 늘어나는 등 SNS가 주도하는 최근 홍보 마케팅 추세 때문이다.

조직위는 이와 함께 소셜아시안게임 구현을

위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성화봉송 앱인 ‘스마트 토치릴레이’도 개발해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조직위 장수환 온라인홍보팀장은 “최초의 소셜아시안게임은 대중의 참여와 공감,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는 19일 개회식에서 성화 점화 시 온라인 성화가 같이 타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사전에 스마트 토치릴레이 앱을 설치하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윤 일병 가해자 “살인죄 인정 못 한다”

이 병장 등 피고인 “고의성 없었다” 주장…강제추행·협박죄도 부인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병사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6일 오전 10시 용인 3군사법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범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 이유로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

견할 수 있었다”며 30여분간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서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을 읽는 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병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자리에 일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두 살인죄를 부인하자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측은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 객관적·전문적 감정을 의

뢰하겠다고 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재개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공판 시작 5분 만에 법정 밖 소란을 이유로 휴정했다.

당시 법정 밖에서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10여 명이 “군사법원 규정 어디에 사전 출입조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나”며 방청객에 대한 출입증 발급 절차를 문제 삼아 군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였다.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재판에 출된 국민의 관심 감안,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임에도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가수 보아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가수 보아와 부친 권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남양주시, 가수 보아 그린벨트 ‘불법 주택’ 고발

9년전 적발되기도 되레 시설 확장…1115.18㎡ 신·증축

가수 보아(본명 권모아)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가수 보아와 아버지 권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일보 8월19일자 18면〉

16일 시에 따르면 당시 권씨 소유의 땅이 경매에 넘어 가자 딸인 가수 보아가 지난 2004년 2월24일 조안면 조안리 347번지 3필지(4609㎡ 약 1394평)를 3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권씨는 불법으로 정원조성(644㎡), 관리사(66㎡), 창고(99㎡), 건조실,

기도실(276.5㎡), 냉장시설, 정자, 계사 등(면적 129.68㎡) 총 1115.18㎡를 신·증축하고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에 시는 현장조사를 벌여 지난 8월7일 시정명령과 함께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지난 2005년에도 불법행위로 고발돼 이행강제금 386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대부분 10여년전 매입한 당시 그대로인데다 내부를 수리하고 온실과 창고에 비가림막을 설치한 것”이라며 “현재 대다수의 불법행위가 땅 매입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본인은 위법사항

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관리승계가 진행된 후에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시정(원상복구) 해야하며 이행치 않을시 양벌 규정의거 소유지, 행위자를 형사고발 등 행정처벌 할 수 밖에 없다”며 “계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질 경우 시정명령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데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주시 북한강면은 상수도보호1권역(특별대책지역)으로 건축법상 엄격한 규제지역이며 제한이 많이 따르는 지역이다.

/남양주·정חק인 기자 in8488@incheonilbo.com

전교조 미복귀자 2차 징계위

내일 양평·김포교육청서 소집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 미복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2차 징계위 소집예정으로 도교육청 소속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가 속한 양평·김포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각 교육지원청은 지난 11~12일 참석 여부를 밝히고 서면소명서를 제출해달라고 2차 징계위 소집계획을 당사자에게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29일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1차 징계위를 열었으나 대상자 전원이 불참하자 2주 뒤쯤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최근 2차 징계위 시일을 정했다.

도교육청 측은 징계위원회 소집은 당사자로부터 미복귀 사유와 계획을 듣는 자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는 12월까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이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학교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가 미진한 곳에 한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미복귀자 신상자료와 복직공문, 징계위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으면서 대집행 초입기에 들어갔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배곧신도시 교통개선책 ‘एं터리 방안 행정’ 논란

공사비 1200억 증가 비판…시 실수 인정

수십억원의 용역비를 지불한 시흥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16일 진행된 제216회 시흥시의회 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도시 개발사업단 행정감사에서 문정복(가선거구·새정치) 의원은 “60억원이 넘는 설계용역비를 지불한 서해안로 지하차도 공사비가 당초 44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엔터리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왕동 일대와 배곧신도시가 연약지반구간인 것은 초등학교도 다 아는 일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간과하고 사업비를 책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1200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배곧신도시 전체 사업비와 분양가 상승 등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구 5만6000명의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줄여 재송인을 요청하려는 부분도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생각할 때 당초 계획과 다른 속임수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행위 허가가 다급해서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당초 LH와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경우 기본설계가 아니고 노선확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시흥·김선진 기자 sskim@incheonilbo.com

시간제일자리 참여기업 작년比 4.7배 ↑

채용박람회·정부 재정지원 등 정책효과 확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채용박람회로 홍보효과를 물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기업 내 새로운 고용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청 지역(수원, 용인, 화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참여기업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09개소(승인인원 466명)로 지난해 23개소(승인인원 171명)에 비해 무려 4.7배 증가했다.

당초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대해 인사노무 관리 관련, 전일제 직원과의 화합 여부 등의 문제로 소극적인 면도 있었으나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배포,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경력단절여성과 기업에 정책효과가 확산된 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 1년간 지원)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지원하고 있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화성시 동탄시티병원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도입초기에는 직원들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으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인해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고 대기시간이 짧아져 서비스의 질이 향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시 경원서비스㈜ 관계자도 “연장근로를 감소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결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근로자들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인건비)지원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영수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많은 사업장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 개발, 기업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결 제 111102-증-24341호

남성수술 이젠 주사로 시술...

비뇨기과 전문의
박정석 원장

뜻이 심각하게 고민 하게 된다. 남성의학을 하고 있는 코벨 비뇨기과 의뢰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 내원한다고 한다.

정말 음경의 크기가 작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만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다.

음경크기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부부관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확대수술로 남성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시행된 음경확대 방법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최근에는 시술 후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입법이 간편하게 시행되고 있다.

화상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저장진피라는 재료를 그대로 분말화 하여 주사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식약청에 사용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안심맞춤이다.

음경 확대와 더불어 남성들의 주요 관심사는 조루

증으로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할까” 불안해 하거나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리적 원인으로 감각 심경이 예민하여 나타나는 기질적 원인의 경우 간단하게 치료한다.

약물주입법은 간단하게 음경에 주입하여 감각을 둔하게 하는 방법이며 이로 인해 사정조절 능력을 만들게 되며, 시술 후 다음날 가벼운 샤워가 가능하다. 음경확대와 조루를 동시에 치료하는 시술로 시술 시간15분 정도면 가능하며 체질에 따라 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다.

평일 및 야간에도 예약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코벨비뇨기과 의원
인천롯데백화점점

문의 전화 **032) 423-8270**

NAVER **코벨비뇨기과** 를 쳐보세요

인천아시아게임개최기념

인천시민만을 위한 우리행사

이벤트기간: 9월 1일 ~ 9월 30일
대상: 인천지역주민만

이벤트 하나!

BD-KA237 정가 ₩259,000
₩179,000 설치비 포함

• 사은품 증정(남비3종세트) - 필터 2개 증정

모델명: BD-KA237

이벤트 둘! 보상 교환 판매

BD-KA433Y (gray) 정가 ₩369,000
BD-KA433RY (red) **₩219,000** 설치비 포함

• 필터 2개 증정

모델명: BD-KA433Y / BD-KA433RY / BD-KA433SY (소형도기 호환가능)

• 판매문의
인천남동구, 남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032-425-0490 / 인천서구, 동구, 계양구, 부평구 032-553-5500

3D프린터 총기제작 원천 차단 나선다

경찰, AG 개막 앞두고 집중 단속... 부품·설계도도 적발 대상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이른바 '3D 총기'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경찰의 경계 대상 1호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서 3D 총기를 제작한 남성이 구속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찰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G 개막을 앞두고 지난 8월 11일부터 불법 총기류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 기간은 AG 폐막 이후인 오는 10월 10일까지다. 특히 이번 단속 대상에는 3D 총기가

포함됐다. 3D 총기 부품과 총기 설계도도 단속 대상이다.

다행히 3D 총기 적발 건수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3D 총기 단속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총기 제작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3D 프린터와 총기 설계도만 있다면 가정집에서 손쉽게 3D 총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올해 3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입체 구조물을 디지털로 제작하는 3D 프린팅 기술은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겠지만, 총기 등을 쉽게 제조하는 프린트 범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3D 프린팅 기술로 총기·폭탄·마약·의약품 등을 간단하게 불법 제조하거나, 동전·열쇠·지문·얼굴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5월 일본에서는 3D 프린터로 권총 5정을 만들어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총기를 휴대할 수 없

는 국가다.

이 남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권총 설계도 정보를 입수한 뒤 플라스틱 부품으로 권총을 제작했다. 총기 제작에 사용된 3D 프린터는 인터넷을 통해 약 6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3D 총기를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인터넷상에서 총기 설계도 흐름을 파악하는 등 국내에서 3D 총기가 제작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2@incheonilbo.com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학교 특별채용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004년 사학 부교로 해직된 인천외고 교사 2인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두 해직 교사 문제는 사학 부교 차원을 넘어서 인천 교육사회의 아픔과 갈등의 상징이었다"며 "인천의 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잊지 않고 복지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특례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시 교육청은 "10년 동안 해직의 아픔을 겪은 교사를 특별한 방식으로 교실로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보장된 특별채용 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시 교육감은 "해직 교사 문제로 오랜 기간 극단적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렸던 과정을 매듭짓고 인천 교육사회가 화합의 장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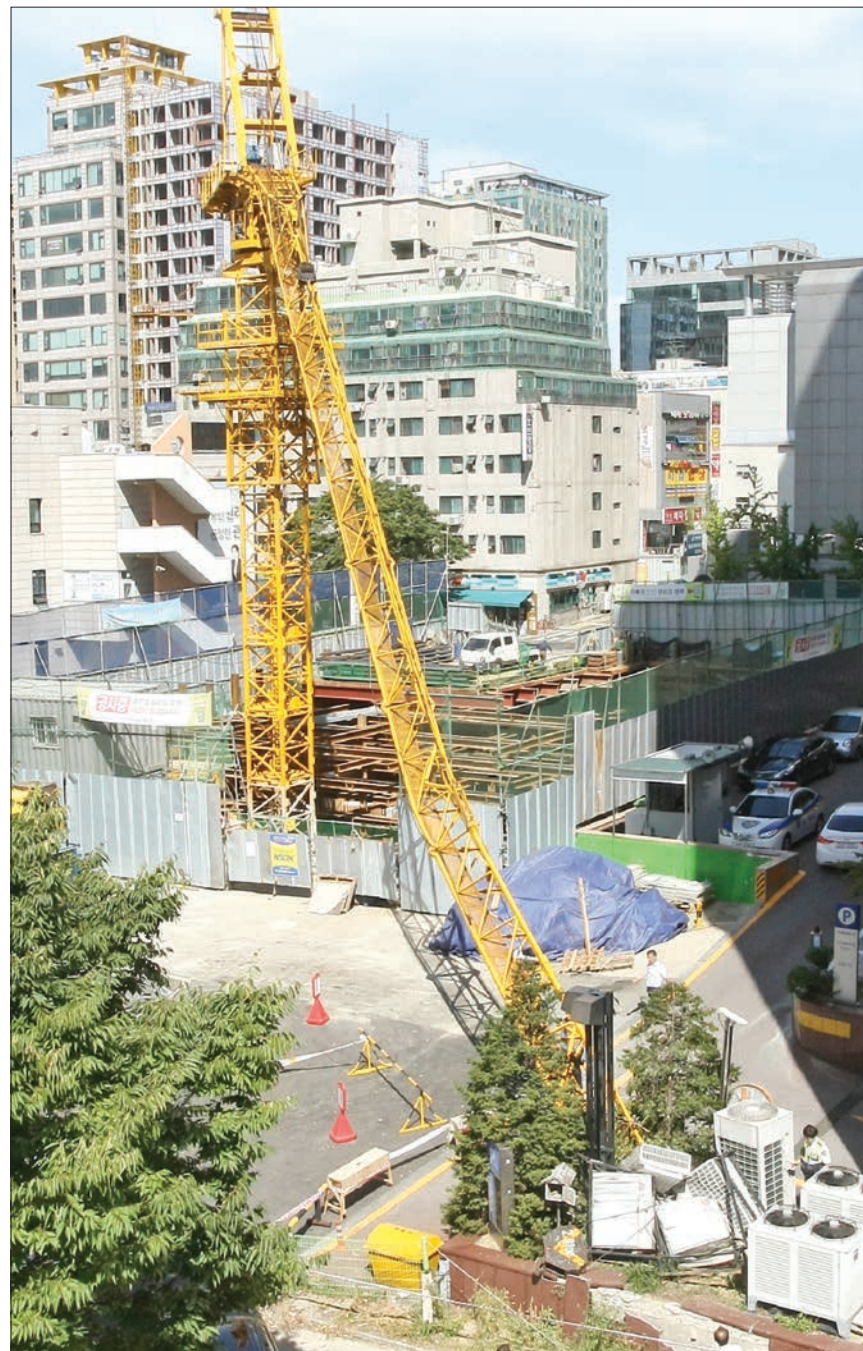
한편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04년 4월 인천외고에서 우열반 편성과 발제제도 등에 반발해 개선을 요구하다 학교장 및 재단 측과 갈등을 빚다가 학사 운영 방해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정지혜 기자 jhh@incheonilbo.com

QR코드로 더 빨리 만나는 인천일보

온라인 인천일보 www.incheonilbo.com이 실시간 제공하는 생생한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만나보세요

인천일보 INCHEON TIMES



16일 오전 8시20분쯤 남동구 구월동 오피스텔 건설공사 현장에서 12m 높이의 크레인이 앞으로 쓰러지는 사고로 현장 관계자들이 현장수습을 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공사현장 크레인 전복 '아찔'

인명피해 無·원인조사 중

도심한복판에서 12m의 기둥기(크레인)가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20분쯤 구월동의 한 신축 호텔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일부가 옆 건물 화단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에어컨 실외기 8대와 화단 대리석 등 1200만원 상당의 재물이 파손됐다.

지난해 12월 공사에 들어간 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호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나도록 업체측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고는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오전 10시28분쯤 접수됐다.

공사업체는 송도에 위치한 건설 전문업체로,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전문으로

다루는 S회사 직원 2명의 실수로 일어났다. 18m 길이에 해당하는 크레인은 엔진 점검 과정에서 12m 정도의 크레인 일부가 밑으로 추락했다.

하마터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삼성화재 건물을 덮쳐 큰 인명피해가 나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는 수습하는데 바빠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안전조치를 빨리 해야 했기 때문"이라면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시민과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타워크레인 업체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엔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구자영 기자 ku80@incheonilbo.com

혐의 벗은 '절도죄' 또 추궁... 엉뚱한 판사

가족 "계속 강압적 질문만... 조사 기록 파악 의심"

법원 "착오 생겼을 수 있어... 불리한 영향 없었다"

포승줄 호송으로 불필요한 '군기잡기'를 겪은 학생이 재판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일보 9월5일 19면>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친구에게 빌린 오토바이를 탄 A(15)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훔쳤던 사실을 몰랐던 A군은 절도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지난 8월20일 인천지법에 소환된 A군에게는 판사의 절도 추궁이 이어졌다.

A군 아버지(52)는 "판사는 '왜 훔쳤

느냐' '훔쳐서 같이 탔느냐' 등 엉뚱한 질문만 하며 어린 학생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웠다"며 "조사 기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고, '심리는 진정하고 온화하게 해야 한다'는 소년법 24조 1항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순 무면허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은 6시간 동안 수갑과 포승에 묶여 소년부 류심사원에 보내졌고, 1달 가까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학생 가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판사 이전에 어른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

고, 조사 기록도 파악하지 않고 경계망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호송 과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16일 현재 736명의 응원 서명을 받은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진정을 접수해 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워낙 많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처리하는데 급급해 착오가 생겼을 수는 있다"며 "절도 혐의를 받은 친구들과 함께 심문이 이뤄져 학생이 억울한 감정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처분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예금보험공사, 유병언 은닉재산 조사 안해

이상규 의원 "보증 채무 140억 탕감" 부실 지적

공적 자금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도를 낸 부실기업의 관련자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차명·은닉 재산 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서울 관악)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이 부도를 내면서 증공사 3곳과 신탁 1곳, 금고 1곳이 파산했고,

예보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해당 금융사에 거액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법정 관리에 들어간 ㈜세모는 10년에 거쳐 1900억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았다.

유 전 회장은 이 기간 옛 세모그룹의 계열사와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 등의 차명으로 대부분 되찾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예보는 부실기업 관련자인

유 전 회장을 대상으로 차명·은닉 재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유 전 회장이 자진 신고한 재산 내역에만 의존해 유 전 회장의 보증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 주지 않았고, 탕감했다.

이 의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은 그의 법인격을 회복시켜 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예보가 최소한 부실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유 전 회장이 자식들 명의로 청해진해운을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범준 기자 parkb2@incheonilbo.com

2014 인천연감

인천일보가 매년 발간하는 '인천연감'은

현대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역사서이자 인천경기 백과사전입니다.

2014년에는 상·하권으로 나눠 인천광역시 / 경기도의 변화를 실었습니다.

지역 각급 기관에서 펼치는 행정 및 의회소식 생활정보를 담아

독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했습니다.

인천연감을 펼치면 인천과 경기도의 모든것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연감을 인천 경기도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우리곁의 백과사전입니다

발행 | 인천일보 INCHEONILBO.COM

구입문의 | (032)4520-127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4 Incheon Asian Games Organizing Committee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전행사

2014 INCHEON K-POP CONCERT 인천한류관광콘서트

EXO-K | 박재범 | 방탄소년단 | 소년공화국 | 시크릿
레드벨벳 | 엠블랙 | 장우혁 | 지나 | 카라 | 티아라 | 포미닛 등

※해당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4.09.17(수) 오후 7시

송도국제업무지구역 일대(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2번지)

홈페이지 : www.incheonkpop.com

행사문의 : 1599-2650

티켓문의 : YES24.COM 1544-6399 www.yes24.com